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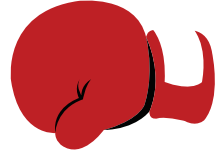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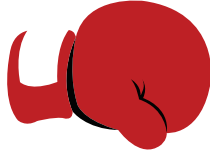
코스피	2270.20 (-36.87)	코스닥	781.38 (-8.87)
금리 (미국 3년)	2.11 (-0.01)	환율 (원/달러)	1126.10 (+5.50) (2일)



[정중동 글로벌 경영]
유럽 건너간 JY
AI·전장 관련
깜짝 M&A 나오나
03

폭염보다 뜨거운 '카드 수수료' 갈등

“더 내려라”



“또 내리라고?”

자영업자

최저임금 인상 등 부담에 집회 열고 인하협상 요구 수수료율 일방통보 '부당'

편의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길거리로 나섰다.

경기 침체와 우후죽순 생기는 경쟁업체 출현으로 매출은 줄고, 인건비 등 부담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전방위 압박에 들어간 것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마트협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2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카드사들에게 '과도하고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인하협상'에 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카드사들이 대형마트나 대형 백화점들과만 수수료를 협상하고 정작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배제해 높은 수수료 부담을 고스란히 자신들이 떠안고 있다는 불만소리가.

집회 참석자는 "카드수수료는 서비스 기간망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수수료율도 일방적으로 통보받고 있어 불공



2일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 앞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마트협회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카드수수료 인하 협상을 요구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하다"면서 "게다가 카드사들은 많은 마케팅 비용을 쓰고 있지만 신용카드 유지관리비를 과도하게 높여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여 단체들은 대형마트 등은 마케팅비 지원을 고려한 실질 카드수수료율이 0.5% 정도이지만 자영업자들은 이들에 비해 4~5배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7.16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내놓으면서 0.8%의 카드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가맹점을 기존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까지 확대했다. 중소가맹점(1.3% 수수료율 적용)도 3억원에서 5억원까지 적용대상을 늘렸다.

벤 수수료 방식도 정액제이던 것을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정률제로 바꾼 제도를 지난달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가파르게 최저임금이 오르는 상황에서 기존 대책으로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다는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지적이다.

앞서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6·13지방선거 당시 각 당에 제출한 정책제안서에서 ▲소상공인 단체에 가맹점 카드수수료 협상권 부여 ▲소상공인 전용벤 또는 공공벤 지정을 통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체크카드 수수료 매출액 구분 없이 0.3% 인하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카드업계

2007년부터 9차례나 내려 연간 1조원 이상 인하 효과

추가 인하 땀 수익 악화 마케팅비 줄여 소비자 피해



카드수수료 인하협상에 카드사들의 불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의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방침에 이어 자영업자들까지 '카드수수료 인하' 협상을 요구하고 나서자 카드사의 불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 살림살이를 나이지게 할 근본적인 대책 없이 카드수수료 인하만 밀어붙이고 있어서다.

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지난 2007년부터 11년간 카드수수료율을 9차례나 인하했다. 여신금융협법 개정으로 2012년부터 3년마다 수수료율을 재산정하고 있지만 우대수수료율은 감독규정 변경만으로 바뀔 수 있어 해마다 내리고 있는 셈이다.

현재 카드수수료율은 매출이 5억원 이상인 일반가맹점은 2% 안팎, 매출이 3억~5억원인 중소기업 1.3%, 매출이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 0.8%의 카드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담당자는 "지금까지 수 차례 카드수수료 인하를 통해 연간 1조원 이상의 수수료 인하 효과를 가져왔다"며 "또 다시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하는 것은 카드업계로선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달 벤(VAN)수수료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면서 카드사의 반발은 거세질 전망이다. 카드사의 표준수수료율은 일

반편의점 2.3%,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2%이지만, 편의점의 경우 건마다 이뤄지는 중간 결제과정을 이달부터 결제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내는 정률제로 바꾸면서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달부터 벤사에 대한 수수료 방식이 바뀌면서 자영업자의 부담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며 "계속해서 수수료율이 인하됐는데 별다른 대안없이 수수료율을 낮춰 악화된 카드사의 경영난은 어디까지 하소연 해야 하나"고 말했다.

한편 카드사의 수익악화는 되레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기세다. 당국에서 카드사 불만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연회비 인상 및 수익성 위주로 회원을 정리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부담을 카드업계가 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수익악화로 경영이 어려워지면 마케팅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 소비자들에게 당연히 돌아가던 부가서비스 축소도 불가피해 카드 사용자가 당연하게 느꼈던 혜택을조차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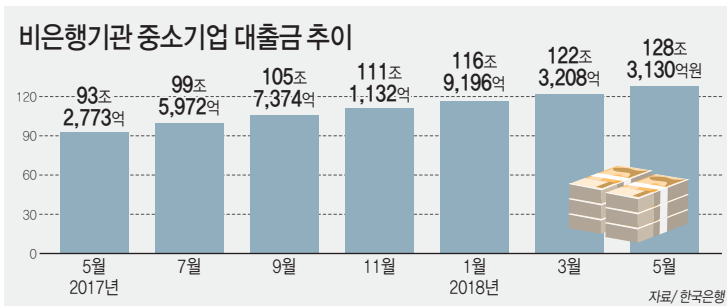
은행 문턱 못 넘은 中소, 2금융서 128조 대출

비은행권 기업대출 중 89% 지난해 보다 약 37% 늘어

중소기업이 시중은행보다 고금리인 제2금융권 대출에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 증가세가 제2금융권에 비해 미미했다. 은행권의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제2금융권으로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또 제2금융권 기업대출 금리가 은행권의 3배에 달해 기업 경영난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대출 부실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의 상생금융 정책과 가계대출 규제로 기업 대출이 증가세를 나타낸 가운데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기업 대출금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은행이 아니면서 수신기능이 있는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신협), 상호금융(농·수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



용권을 의미한다.

올해 5월 기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기업 대출금은 144조원을 돌파해 5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2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현재 비은행예금취급기관(비은행권) 기업대출금 잔액은 144조606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110조5690억원)에 비해 약 31% 증가한 것이다. 올해 들어 기업대출금잔액은 1월 134조원, 2월 136조원, 3월 138조원, 4월 141조원으로 나타나 꾸준히 2%대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은행권은 지난 5월 기업대출 잔액이 839조9851억으로, 작년 동기(792조)에 비해 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또한 비은행권의 기업대출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월 말 기준 144조원이 넘는 기업대출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은 128조3130억원으로 전체의 88.8%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93조2773억원)에 비해 약 37% 증가한 것이다. (2면에 계속)

/유재희 기자 ryusoul91@

'공모형 리츠', 시중자금 빨아들인다

신한알파리츠 청약경쟁률 4.3대1... 리츠 역대 최고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공모형 리츠(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뮤추얼펀드·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상품에 몰리고 있다.

적은 자금으로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 7~8%대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서민들의 자산증식을 위해 공모형 리츠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 정비에 나섰고, 금융투자업계는 공모형 리츠 상품 발굴에 적극적이다.

◆신한, 리츠 공모펀드 흥행 '스타트'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완료된 신한알파리츠의 공모주 청약 경쟁률은 4.3대 1로 역대 상장리츠 중 최고를 기록했다. 총 1140억원 모집에 4928억원

의 시중 자금이 쏠린 것이다. 그동안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끌지 못했던 부동산 공모펀드가 이례적인 흥행을 기록하며 돌풍을 예고했다.

신한알파리츠의 흥행비결은 우량한 기초자산과 안정적인 배당수익률에 있다. 신한알파리츠의 기초 자산은 '판교알파돔 6-4'빌딩과 '용산더프라임타워'(부동산관련 증권 32.9%)다. 판교알파돔시티는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올 4월 준공됐음에도 이미 오피스 기준 임대계약을 100% 완료한 핵심 자산이다. 임차인과 5~10년의 장기 계약 구조로 임대료 인상률은 연 2.5%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평균 배당수익률은 6%, 10년간 7%로 예상된다. 게다가 상장되는 공모 상품인 만큼 추가 상승에 따른 추가적인 수익을 덩이로 얻을 수 있다.

연말에는 올해 기업공개(IPO) 초대어로 꼽히는 '홈플러스 리츠' 상장이 기다리고 있다. 홈플러스

가 보유한 매장 44곳을 매입해 여가서 나오는 임대수입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방식이다. 매장별로 최소 10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10년 평균 7.5% 수준의 배당 수익률이 기대된다. 공모금액 2조원, 자산규모 4조 5000억원에 달하는 리츠상품으로 상장 성공할 경우 국내 최초로 조 단위의 초대형 리츠가 탄생하게 된다.

◆국토부 "서민 투자기회 확대, 공모형 리츠 장려"

한국리츠협회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리츠는 총 198건으로 같은 기간 공모리츠 총 6개(상장 5개·비상장 1개)로 사모 리츠 비중이 전체 리츠의 97% 수준이다. 시장 자체가 사모·기관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사모형은 모집 단위도 크고 공시 의무에서도 자유롭기 때문에 운용사 입장에서는 사모형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다.

(2면에 계속) /손영지 기자 sonumji301@

새 회계기준 본격 도입... 자본확충에 사활 건 보험사

(IFRS17(보험업신국제회계기준)·K-ICS(신지급여력제도))

업계, 도입유예·단계적용 요구에도
금감원, K-ICS 내부모형 절차 착수
IPO·영구채 발행 등 자본조달 분주

IFRS17(보험업신국제회계기준)과 K-ICS(신지급여력제도)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보험사들이 자본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금융당국에 도입 유예를 요구했지만 반응이 미적지근하자 제 살길을 찾아 나선 것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준비상황과 수용 가능성 등을 감안해 IFRS17과 K-ICS의 도입을 유예하거나 단계적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두 제도의 동시 도입은 보험사들의 수익성은 물론 생존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과장이 크기 때문이다.

IFRS17은 보험부채의 평가 기준을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보험회계기준이다. 이에 따라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보험금 지급여력비



보험업계가 2021년 IFRS17(보험업신국제회계기준)과 K-ICS(신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앞두고 자본확충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한화손해보험 건물 전경. /김희주 기자

율(RBC)을 따지는 K-ICS도 2021년 동시에 도입된다.

K-ICS 적용 시 요구자본이 크게 증가해 재무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K-ICS에서 지급여력비율은 보험회사에 노출된 리스크인 '요구자본' 대비 손실흡수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자본'의 비

율로 최소 100%가 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32개 주요 생명·손해보험사 중 RBC비율이 200% 이하인 곳은 15곳이다. 22개 생보사(IBK연금보험·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제외) 중 7곳, 10개 종합 손보사 중 8곳의 RBC비율이 200% 아래다.

보험개발원은 "감독당국은 (K-ICS와 IFRS17)제도 도입 초기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험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과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보험사들의 도입 유예 또는 단계적 적용 요구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K-ICS 내부 모형 승인 예비신청 절차에 착수했다. 이는 리스크 측정시스템 개발에 대한 방향성 등을 감독 당국이 사전에 확인해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보험리스크제도 내 내부모형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예비신청서 심사, 모형 적정성 점검 등을 하고 내년까지 내부모형 본승인을 위한 매뉴얼을 완성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험사들은 당장 3년 앞으로 다가온 두 제도에 대응해 자본확충에 나서고 있다.

우선 교보생명은 IPO와 신종자본증권(영구채) 발행을 통한 5조원 규모의 자본

확충 계획을 밝혔다. 교보생명에는 지난 2년간 IFRS17 도입에 대비한 자본 조달 전략을 마련했고, 올 초 K-ICS 초안이 확정되자 지난 3개월간 추가로 필요한 자본 규모를 추정했다.

동양생명은 해외 영구채(신종자본증권) 대신 해외 후순위채를 발행해 자본을 쌓기로 했다. 채권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보다는 이자 부담을 절감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춘 것이다.

국내로 방향을 튼 보험사들도 있다. 현대해상은 올해 3분기 중 5000억원 이내의 국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한화손해보험은 지난달 말 1900억원 규모의 국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국에 IFRS17과 K-ICS의 점진적인 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당국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체력 강화를 위해 자본을 쌓아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저축은행 대출금리, 예금은행의 3배

>> 1면 '은행 문턱 못 넘은...'서 계속

반면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 금액은 5월 기준 672조3667억으로, 작년 동기(628조2961억)에 비해 7%에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같은 양 대출기관의 증가세를 분석해 보면 은행권의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비은행권 기업대출이 은행보다 고금리 대출이라는 점이다.

5월 저축은행 기업대출 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 금리는 연 11.02%로 예금은행 기업대출 금리(3.45%)의 3배를 넘는 다. 지난 5월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85%로 지난해 11월 말(0.85%) 이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또한 4월 상호저축은행의 기업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8.38%였다. 1년 만에 0.32%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경제침체, 금리인상 등의 리스크가 불거지면 중소기업 대출의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은행의 연체율 및 NPL(부실채권)비율 등 건전성 지표는 양호한 편이지만 최근 수출 부진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초래될 경우에는 이자지급 능력이 떨어져 은행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연구원 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담보를 걸고 대출을 실행한다고 해서 건전성을 안심할 수는 없다"며 "무엇보다 금융권은 기업의 사업현황을 보고 대출을 실행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유재희 기자

은행권 원화대출 연체율 0.51%... 하락 전환

전월말 대비 0.11%p 떨어져

올해 6월 기준 국내 은행 원화 대출 연체율이 0.11%포인트 하락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신규 연체 발생액을 웃돌아 연체채권 잔액이 감소한 것.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말 국내 은행 원화 대출 연체율은 0.51%로 전월 말(0.62%) 대비 0.11%포인트 하락했다. 또 지난해 같은 달(0.43%)보다는 0.08%포인트 높은 수치다. 대출 연체율은 전체 대출 원리금 중 1개월 이상 연체한 원리

금 비중이다.

이달 은행의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2조 9000억원을 기록해 신규 연체 발생액(1조 1000억원)을 웃돌아 연체채권 잔액(7조 9000억원)이 1조 8000억원 감소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25%로 전월(0.28%)보다 0.03%포인트 내려갔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19%로 전월 말(0.19%)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신용대출 연체율은 0.40%로 한 달 새 0.09%포인트 하락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73%로 전월(0.91%)보다 0.18%포인트 하락했다. 대

기업대출은 전월 말(1.81%)보다 0.18%포인트 줄었고, 중소기업대출은 0.21%포인트 하락한 0.48%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6월 중 은행 연체율은 반기 말 연체채권 정리 효과 영향으로 5월보다 하락했다"며 "가계대출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기업대출은 중소기업 대출연체채권 정리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향후 시장금리 상승 등에 따른 연체 증가에 대비해 신규 연체 발생 추이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정부, 리츠 활성화 제도 정비 나서

>> 1면 '공모형 리츠...'서 계속

때문에 정부 및 국토부는 금융투자업계의 공모 리츠 상품 활성화를 받고 있다. 운용사에게는 공모형 리츠 상품을 장려하는 한편 각종 규제 완화도 구상하고 있다.

신한리츠운용이 해당 리츠 펀드를 공모형으로 모집한 것 역시 국토부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알파돔 딜(deal)을 따올 때부터 국토부는 개인들도 리츠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모형 상품 출시를 요구했다"면서 "때문에 1140억원 규모를 개인투자자들에게 오픈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토부로부터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인가를 받은 이지스자산운용과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미래에셋자산운용 등도 향후 공모형 리츠펀드 출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아울러 공모형 리츠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주당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투자 회사법 개정안'은 리츠의 일반 국민 공모 의무가 면제되는 연금의 투자비율을 현재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공모 리츠의 경우 기본적으로 상장을 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있지만 청약기간 중 국민연금 등 '시행령에서 지정한 투자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면 상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이 있다.

또 오는 9월 국토부는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여기에는 비개발, 위탁관리형 리츠의 예비심사를 폐지해 상장 심사 기간을 줄이는 내용 등이 담길 전망이다.

이경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는 부동산에 출된 유동자금을 간접투자 상품으로 분산하고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자 리츠 활성화 정책을 내놓고 있다"면서 "부동산 간접투자자에 대한 관심 증대와 정부 지원으로 공모리츠 상장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증권가 "美FOMC, 9월 금리인상 신호 재확인"

국내 증권가 전문가들은 2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8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목표금리를 1.75~2.00% 동결하면서 9월 금리인상의 신호를 전달한 것으로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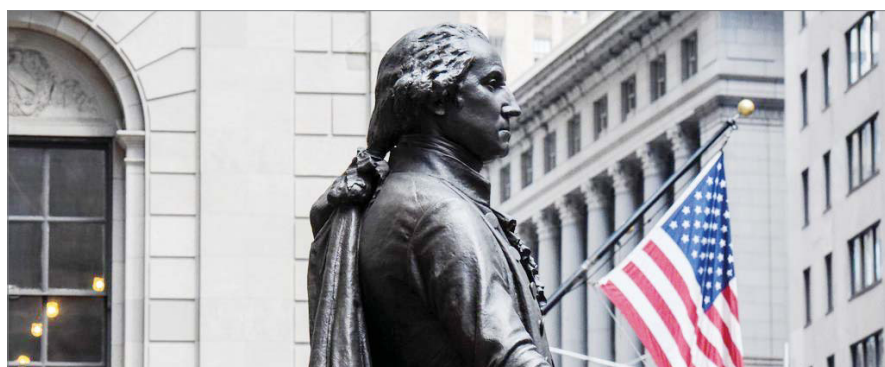
박성우 흥국증권 연구원은 "이번 FOMC는 Fed가 성명서 내 경제 활동에 대한 평가에서 경기 확장 속도가 기존의 '견고한(solid)'에서 '강한(strong)'으로 변화했다"며 "기존의 통화정책 정상화 경로를 이어갈 것이란 인상을 줬다"고 분석했다.

또 최광혁 이베스트증권 연구원은 "이번 FOMC는 기존의 경기 자신감을 확인하고, 연내 기준금리 4차례 인상에 대한 확신을 줬다"고 해석했다.

진용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9월 FOMC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라며 "9월까지 미국 경기가 견조함을 이어간다면 미국 연준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금리 인상을 지속해서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미국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연율 4.1%(1분기 2.2%)를 기록하며 절대적인 성장성을 보이고 있다.

또 KB증권에 따르면 이번 FOMC 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일(현지시간)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현 1.75~2.00%로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뉴욕 월가 뉴욕 증권거래소 근처에서 서 있는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동상의 모습. /연철뉴스

후 시카고상품거래소(CME) 선물시장의 9월 금리인상 확률은 92%로 전날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경기에 대한 연준의 자신감에도 가파른 통화 긴축을 걱정할 필요는 없으며 연준이 점진적인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회의에서 연준은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여러 논란을 사전에 차단했다"며 "월가의 금리 인상 정점 논쟁과 대통령까지 가세한 금리 언급에 일단 중앙은행 차원에서 펀더멘털에 기반한 정책 정상화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금융시장 차원에서는 연준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 자체의 영향력은 중립적"이라고 덧붙였다.

소재용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연준이 통화정책 정상화 스탠스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한 것은 물가 안정을 앞세워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간접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영지기자 sonumji301@

유럽 건너간 JY, AI·전장 관련 깜짝 M&A 나오나

〈車에 사용하는 전자장치〉



6일 전후 김동연 부총리 만날 듯
유럽 완성차에 ADAS 탑재 예정

세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유럽 출장 중인 것으로 2일 전해졌다.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이후 다섯 번째 출장이며 두 번째 유럽행인 이번 출장이후 이 부회장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확한 출국 날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세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인도출장 후 지난달 11일 귀국한 직후 유럽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회장은 오는 6일을 전후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

라서 이 부회장은 이번주 안에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유럽 출장은 기간이 비교적 길고 직후 김 부총리를 만나 투자·고용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목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유럽과 삼성전자의 향후 투자 계획을 연관짓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유럽은 삼성이 차세대 성장 동력 사업으로 중점을 두는 인공지능(AI)이 발전한 지역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22일 영국 케임브리지를 시작으로 같은 달 24일 캐나다 토론토, 29일 러시아 모스크바에 새 인공지능 연구소의 문을 차례로 열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우수 인재가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연구개발 거점을 설립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최근 2020년까지 인공지능 분야에 민관을 포함한 총

200억유로(약 26조원)의 자금을 투자할 계획이라 발표했다. 이에 유럽 로봇산업 연합단체인 EU나이트드(EUUnited)는 유럽 산업계가 미국, 중국보다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인공지능 분야에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찬성했다.

또한 유럽은 전통적인 자동차 사업 강국이 많은 만큼 전장산업 쪽에도 적극적이다. 커넥티드카 분야 등에 유수의 유럽 자동차 업체가 관심을 보이고 연구와 투자를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10일(현지시간) CES 2018에 하만과 함께 만든 첨단운전자 보조시스템(ADAS) 제품도 공개했다. 삼성은 이 시스템이 2021년 출시 예정인 유럽 완성차에 적용될 예정이다. 업계에선 폭스바겐그룹 소속 세아트와 BMW, 메르세데스-벤츠 등에 탑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은 3월 프랑스와 캐나다

를 거치며 AI사업을 논의했으며 5월 출장에서 중국과 일본을 찾아 자동차 전장 사업과 반도체사업 등에 대해 최고경영자(CEO)와 이야기를 나누는 바 있다. 7월 인도 출장에서는 노이다 스마트폰 공장 준공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을 가졌다.

업계에서는 다섯 번째 출장 가운데 이후 인공지능이나 전장사업에서 큰 규모의 인수합병(M&A) 등 발표가 있을 것이라 관측이다. 삼성전자가 7월 말부터 자회사인 하만을 통해 개발한 인공지능 스피커에 주력하는 만큼 관련 원천기술을 가진 해외 업체를 인수합병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또한 유럽의 인공지능과 전장산업 투자 현황은 본 이 부회장이 귀국후 삼성 내부 역량 향상을 위해 대규모 투자와 채용 계획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연병도 기자 catchrod@metroseoul.co.kr

지난 4월 해외 출장길에 올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입국하고 있다. /연할뉴스

현대차의 글로벌 공략... 사우디선 '여심잡기'-美·中선 '신차 공세'



사우디 여성 캠페인·특화 마케팅 하반기 경쟁력 다양한 신차 라인업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시장 공략 가속화를 위해 신차 출시와 차별화된 마케팅을 진행한다.

이는 올 하반기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일부 신흥시장을 제외하고 대부분 시장에서 자동차 수요가 약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판매량 감소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잠재고객 600만명 '여심잡기'

2일 현대차에 따르면 최근 여성 운전이 허용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심 잡기에 나섰다. 유명 여성 인사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해 여성 운전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여성 친화적 디지털 쇼룸을 개설하고 여성 특화 시승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또 현지 신차 보도 발표회, 여성 안전 운전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브랜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이동성의 자유를 갖게 된 사



사우디아라비아의 현대차 브랜드 홍보대사로 선정된 패션 디자이너 림 파이잘, 사업가 바이안 린자위,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이자 여행 블로거인 샤디아 압둘 아지즈(왼쪽부터)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우디 여성들이 운전을 시작함에 따라 향후 더 많은 성취를 이뤄낼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는 메시지를 담은 'whatsnext' 캠페인을 진행한다.

현대차는 사우디에서 여성 운전이 허용된 당일부터 whatsnext 캠페인의 사전 티저 영상을 마이크로 사이트를 비롯한 현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

등을 통해 게재했다. 캠페인 티저 영상은 현재까지 페이스북에서 150만부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또 여성 전용 시승차 운영 대수를 확대하고, 시승 서비스 지원을 위한 시승 전용 앱을 개발하는 등 여성 특화 시승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현대차는 차량에 적용되는 사양도 차

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을 배려해 프론트 도어 선제이드를 제공하고, 옷이 차량 도어에 끼는 것을 방지하는 '도어 기임 경보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신규 개발해 적용했다.

이외에도 별도의 전담조직인 '사우디 여성 고객 케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우디아라비아 여성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및 판매전략 수립, 현지 시장조사, 이슬람 율법을 포함한 법규 점검 등을 진행 중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 인구는 약 900만명으로 이중 가운데 600만 명 정도가 운전면허증 시험에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美·中 하반기 신차로 공략

현대차는 또 올 하반기엔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과 중국에서 신차 출시를 통해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미국시장에서 올 상반기 전년 대비 3.3% 감소한 33만 5000대를 판매한 현대차는 하반기 다양한 라인업을 출시하며 상승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미국 시장에 신행 신택페를 시작으로 엘란트와 투싼 개조차 등을 출시할 예정이다.

또 제네시스 G70 출시를 통해 고급차 시장에서의 지위를 강화하고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코나 전기차 등을 출시해 친환경차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할 방침이다.

트럼프발 통상압력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수입차와 부품관세 인상 시에는 차량 가격 상승분이 고객에 전가돼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한다"며 "현지 생산 비용 상승에 따른 고공 감소 우려, 향후 투자 계획을 포함한 회사의 의견을 이달 초 미국 상무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동차 수요가 위축되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과 라페스타 출시를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국 현지 IT 기업인 딩클린트와 바이두와 손잡고 미래차 기술 협력에 나선다.

현대차 관계자는 "중국시장이 성수기에 진입하는 오는 9월 이후 다양한 이벤트 및 신규 트림 출시 등으로 고객 관심을 높일 것"이라며 "중국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인 딩클린트사와 협력 파트너십을 맺고 중국 인터넷기업 바이두의 자율주행차 프로젝트인 '아폴로 프로그램'에 참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양성준 기자 ysw@

발행주식 초과수량 입고 안된다... 증권사 전산시스템 개선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태 사전방지
실물주식·대량매매 확인 절차 추가

삼성증권 배당 오류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총 발행주식수를 초과한 수량은 입고되지 않도록 증권사의 전산시스템이 개선된다.

또 도난·위조 주식이 입고돼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물 주식은 예탁결제원과 증권사의 확인 과정을 거치기 전에는 매도를 금지하고 주식 대량매매(블록딜) 시 증권사 책임자의 승인절차가 추가된다.

김도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2일 이 같은 증권사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금감원은 한

국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과 함께 32개 증권사와 코스콤의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이런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증권사들은 주식 실물 입고 및 대체 입·출고 시 발행 주식 수를 넘는 주식 수량이 입고되는 것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앞서 삼성증권의 경우 발행 주식 수(8930만주)를 훌쩍 뛰어넘는 28억주가 우리사주 배상시스템에 잘못 입고돼 사상 초유의 배당 오류 사태가 벌어졌다.

또 도난·위조 주식 등 사고 주식이 증권사에 입고되거나 거래되는 것을 막고자 실물주식 입고가 의뢰될 경우에는 예탁원과 증권사의 확인 전까지는 매도를 제

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증권사는 주식 실물입고 시 영업점에서 실물주식 금액대별로 책임자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일부 증권사는 책임자 승인 없이 담당자 입력만으로 주식 실물입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주식 매매주문과 관련된 시스템도 개선된다.

블록딜 시스템의 경우 현재 증권사 담당자가 입력하면 매매가 체결되는데 앞으로는 50억원 초과 주문 시 증권사 책임자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호가 거부 기준인 상장주식 대비 5% 이상의 대규모 호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주문전송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 배당 오류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총 발행주식수를 초과한 수량은 입고되지 않도록 증권사의 전산시스템이 개선한다. /금융감독원

또 금융투자협회의 모범규준에 따라 기관투자자들이 직접 주문하는 DMA(직접주문접속)를 이용하더라도 주문이 보류되도록 개선한다. 해외주식도 대량·고액 주문에 대한 경고메시지가 나타나 주문이 보류되는 방식을 적용한다.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은 주문금액이 30억~60억원 또는 상장주식 수 1~3%의 경우 증권사가 경고 메시지를 내고 주문액이 60억원 초과 또는 상장주식 수 3% 초과 시에는 주문이 보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재희 기자 yusoul91@

삼성, 데스 지원·S펜 강화한 '프리미엄 태블릿' 공개



'갤럭시 탭 S4' 이달 중순 출시

태블릿 최초 '삼성 데스' 장착
데스크탑 PC 사용경험 제공

꺼진 화면 메모·번역기능 등
S펜 강화로 생활편의성 확대



갤럭시 탭 S4.

갤럭시 탭 A(2018).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프리미엄 태블릿 신제품 '갤럭시 탭 S4'를 2일 공개했다.

갤럭시 탭 S4는 태블릿 최초로 모바일 기기에서 데스크탑 PC의 사용경험을 제공하는 '삼성 데스'를 지원하고 정교한 필기가 가능한 'S펜'을 통해 생산성을 강화했다.

별도의 액세서리 없이 갤럭시 탭 S4의 퀵 패널에서 삼성 데스를 바로 실행하거나, 갤럭시 탭 S4를 '북 커버 키보드'에 꽂기만 하면 실행할 수 있다.

또한, 갤럭시 탭 S4를 HDMI 어댑터로 모니터나 TV로 연결하면 더 큰 화면에서 업무를 하거나 동영상, 게임을 즐길 수도

있다.

S펜은 0.7mm 펜촉, 4096단계 필압을 인식해 자연스러운 필기감을 제공하며, 정교하고 세밀한 작업이 가능하다. 또한 S펜 버튼을 누르면 ▲나만의 개성 있는 표현으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라이브 메시지'가 태블릿 최초로 제공되며 ▲문장이나 단어, 환율, 단위까지 번역해주는 '번역' ▲일반 캡처뿐 아니라 동영상에서 원하는 부분을 잘라 GIF로 저장도 가능한 '스마트 셀렉트' 등을 지원한다.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도 바로 S펜으로 메모할 수 있는 '꺼진 화면 메모'도 지원해 메모 내용이 삼성 노트에 자동으로 저

장되며, 최대 100페이지까지 메모가 가능하다.

갤럭시 탭 S4는 10.5형 화면에 슬림한 베젤(테두리)의 16:10의 화면비, 하만의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 'AKG' 기술로 완성한 4개의 스피커와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해 실감나는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제공한다.

우선, 상하단 베젤에서 각각 브랜드 로고와 홈 버튼을 제거해 화면을 최대화했다. 또한 갤럭시 탭 S4는 4개의 모서리에 모두 전자 대비 생생한 음질의 스피커를 탑재했으며, 사용자가 태블릿을 가로로 사용하고 있는지 혹은 세로로 사용하

고 있는지 인식해 자동으로 스피커를 전환함으로써 최적의 사운드 경험을 제공한다.

시간·달력·날씨 등 정보나 사진 앨범 보여주는 '데일리 보드'와 사물인터넷(IoT) 지원 기기들을 한 번에 제어 가능한 '스마트싱스'로 집안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빅스비 비전·홈·리마인더를 탑재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사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으며, 일정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빅스비 보이스도 추후 지원될 예정이다.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자동으로 연결해 이미지나 영상, 문서 등의 콘텐츠를 자유롭게 공유하고, 어느 기기에서든 알림을 확인할 수 있는 '삼성 플로우'도 지원한다.

이밖에도 갤럭시 탭 S4는 7300mAh의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최대 16시간 연속 동영상 재생이 가능하며, 삼성의 보안 플랫폼인 노스를 비롯해 흥채인식을 지원해 강화된 보안성을 제공한다.

한편, 삼성전자는 갤럭시 탭 S4와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갤럭시 탭 A(2018)'도 공개했다.

갤럭시 탭 A는 어린이들의 올바른 디지털 습관을 길러주는 '키즈 모드'를 지원해 온 가족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키즈 모드'는 어린이 맞춤형 UI 디자인으로 전화·카메라·뮤직·브라우저 등 어린이들이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을 제공하며, 태블릿 사용 시간과 콘텐츠를 제어할 수 있는 '부모 모드',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Galaxy Apps for Kids Store'를 제공한다.

또한, 필리핀·도쿄·보카 등에서 제공하는 인기 어린이 애플리케이션 8종을 단독으로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IM부문장 고동진 사장은 "일상 생활의 편의성을 확대하는데 태블릿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갤럭시 탭 S4는 언제 어디서든 사용자가 더 많은 작업을 더욱 쉽고 즐겁게 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갤럭시 탭 S4'는 블랙과 그레이로 2가지 색상, 갤럭시 탭 A는 블랙, 그레이, 블루 등 3가지 색상으로 8월 중순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LGU+, 임직원 '창업 꿈' 돕는다

오는 10일까지 사내벤처 1기 모집

LG유플러스는 사내벤처 1기 모집을 통해 신사업 역량을 보유한 혁신적인 스타트업 육성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내벤처 프로그램은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AR(증강현실), 로봇, 스마트홈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에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 모델을 발굴한다. 운영 기간 종료 후에는 최종 평가를 통해 임직원들에게 스타트업 창업의 기회도 주어진다.

LG유플러스는 임직원들이 사내벤처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사업 개발에 몰입할 수 있도록 1년간 별도 태스크포스(TF) 조직으로 발령한다. 이와 함께 ▲사내벤처 팀 당 최대 1억7000만원 예산 지원 ▲마곡 LG사이언스파크 내 별도 업무 공간 마련 ▲사내벤처 기간 동일한 급여·복지후생 및 성과급 지급 등 회사차원에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사내벤처 기간 동안 온라인 교육 및 선배 벤처기업인들의 멘토링은 물론,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내벤처 전담 조직 운영을 통해 IR·데모데이, 해외 진출 등 향후 창업 성공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또 LG유플러스는 LG테크놀로지벤처스에서 운영하는 'LG Uplus 펀드 I'를 비롯해 'KIF'(Korea Information & Technology Fund), '소프트뱅크벤처스 코리아', '심본투자파트너스' 등 출자 펀드 및 회사가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심본 활용해 사내벤처에서 스타트업을 창업한 이후에도 필요한 투자유치 및 기술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사내벤처 1기 모집은 오는 10일까지 진행되며, 외부와 사내 인사로 구성된 선정 위원회에서 최대 5개 팀을 선발하게 된다. 이 팀들은 9월부터 운영을 시작해 내년 8월 사내벤처 사업과 여부를 최종 평가 받는다. /김나인 기자 silkni@

KT, 아시안게임 방송중계망 구축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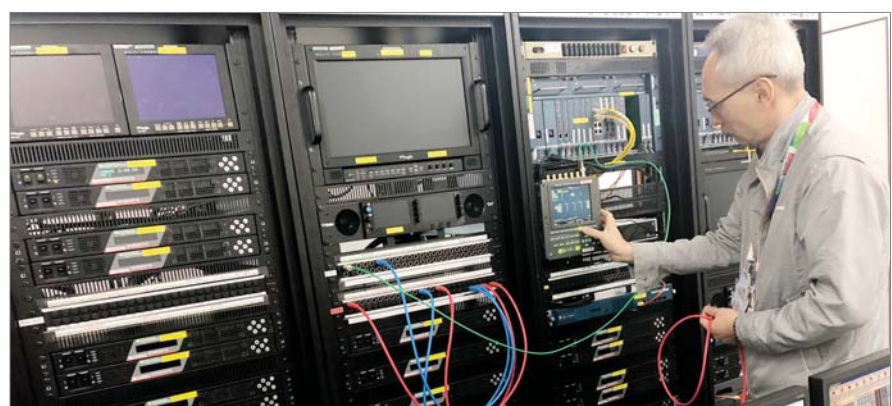
지상파 3사에 단독 제공
장애 대비 긴급복구 훈련 등
중계 차질 없도록 철저 준비

KT는 18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2018 자카르타-팔렐방 아시안게임 중계를 위해 한국과 인도네시아간 국제방송중계망 구축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KT는 이번 아시안게임을 실시간으로 국내에 전송하기 위한 국제방송중계망 주관 통신사로 뽑혔다. 현지 경기장에서 KT의 국제방송통신망을 통해 전송된 방송을 해화에 위치한 KT 국제통신운용센터에서 수신해 지상파 3사에 단독 제공한다.

KT는 원활한 방송중계를 위해 자카르타 국제방송센터(IBC)와 한국 지상파 3사간 국제해저케이블 전체 구간을 주경로와 예비경로 형태로 이중화했다. KT가 홍콩에 운영하는 해외거점시설을 활용해 네트워크 장애 같은 상황이 발생해도 즉시 우회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해저케이블뿐 아니라 육로를 통한 광케이블도 활용한다.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한 대만 앞바다에서 대규모 지진 등



7월 30일(현지시간) 자카르타 국제방송센터(IBC)에서 KT 직원이 네트워크 품질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KT

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KT 홍콩 해외거점 시설에서 중국을 경유하는 육로를 통한 광케이블을 활용해 즉시 대응한다.

KT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국제통신 지원준비를 위한 품질테스트 및 비상사태를 대비한 긴급복구 훈련을 마쳤다. 대회기간 성공적인 통신지원을 위해 KT는 11일부터 대회가 종료되는 9월 2일까지 종합상황실을 개설해 비상근무 체계로 들어간다. 아시안게임 원정운영단 등 인도네시아 관광객을 위한 국제전화 및 국제인터넷 소통대책에도 최선을 다해 무

결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KT 글로벌컨설팅수행단장 김성인 상무는 "KT는 2014 브라질 월드컵, 2016 리우 올림픽,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이번 아시안게임까지 주요 국제 스포츠행사의 방송중계망을 제공해왔다"며 "이는 KT의 노하우와 기술력을 인정 받은 결과로 기쁘게 생각하며, 남북단일팀이 출전하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국민 기업으로서 방송 중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후쿠오카·오키나와 신규취항 특가 이벤트

에어서울, 8~9월 '콕콕 특가'
편도 항공운임 3만원대 판매



에어서울 항공기.

에어서울이 8월과 9월 일본 여행객을 위한 특가 항공권을 선보인다.

에어서울은 3일 오전 10시부터 콕콕 집어 지정된 날짜에 후쿠오카와 오키나와 편도 항공권을 항공운임 1만원(유류할증료 및 공항세 별도)에 판매하는 '콕콕 특가'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후쿠오카와 오키나와 신규 취항을 맞아 진행되는 이번 '콕콕 특가'는 미리 특가 날짜를 콕콕 집어 알려주기 때문에 언제 특가 좌석이 열려있는지 찾을 필요가 없다.

후쿠오카~인천 노선은 8월 27일과 28일에, 오키나와~인천 노선은 9월 21일과

9월 23일에 각각 특가 좌석이 오픈된다. 유류할증료 및 공항세를 모두 포함한 편도 종약은 후쿠오카~인천이 편도 기준 3만2200원부터, 오키나와~인천 노선이 편도 기준 3만3500원부터다.

'콕콕 특가' 이벤트는 8월 3일 오전 10시부터 8월 17일까지 에어서울 홈페이지 회원에 한해 구매할 수 있다. /양성운 기자 ysw@

KT, 대구 메리어트호텔에 AI 관리서비스

KT가 내년 문을 여는 대구 메리어트 페어필드 호텔에 인공지능(AI) 기반의 호텔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KT는 1일 대구 메리어트 호텔 시행사인 제이스스템스와 이런 내용을 담은 AI 호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KT 마케팅 부문장 이필재 부사장, 제이스스템트 스티븐 장 대표이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제이스스템트는 내년 개관 예정인 대구

메리어트 호텔&레지던스와 페어필드 바이 메리어트 부산 송도 비치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M)회사다. 또한 대구 메리어트 페어필드 호텔의 시행사다.

협약에 따라 KT는 자사 음성인식 인공지능인 기가지니를 활용해 객실 조명과 냉·난방 제어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KT 관계자는 "제이스스템트와 AI 호텔 서비스뿐 아니라 ICT를 기반으로 한 협업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 호텔 솔루션 구축을 위한



1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East에서 진행된 협약식에서 KT 마케팅부문장 이필재(오른쪽) 부사장, 제이스스템트 스티븐 장 대표이사(왼쪽)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T

조현준의 ‘가슴 뜨거운 여름’... 폭염 속 이웃나눔 실천

(효성그룹 회장)



마포구 취약계층 500세대 방문해 쌀 1만kg·수박·과일 등 직접 전달 13년째 쌀 기부... 누적 1.5만포대 “이웃을 위해 사회적 책임 다할 것”



지난 1일 조현준 효성 회장(왼쪽 첫번째)이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의 취약계층 세대를 방문해 시원한 수박과 농촌 판로 지원을 위해 함안에서 구입한 쌀을 전하고 답소를 나누고 있다. /효성

효성 조현준 회장이 폭염으로 힘겨운 여름을 나고 있는 마포구 취약계층 이웃을 방문해 사랑의 쌀을 전달하고 수박을 함께 먹으며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기를 응원했다.

효성은 전국 기온 관측을 시작한 111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한 지난 1일 조

회장과 임직원으로 구성된 효성나눔봉사단 20여명이 서울 성산동 임대 아파트 등 마포구 이웃 500세대를 방문해 1만kg의 쌀과 과일 등을 전달했다고 2일 밝

혔다. 효성은 지난 2006년부터 13년째 매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포구 주민에게 ‘사랑의 쌀’을 전달해왔다. 매년

1000포대 이상의 쌀을 전달, 누적으로는 1만5000포대를 넘어섰다.

사랑의 쌀은 효성이 농촌의 안정적인 판로를 열어주기 위해 자매마을인 경남 함안에서 지난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구입해오고 있다. 자매마을과의 상생은 물론 마포구 이웃들에게 품질 좋은 쌀을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조 회장은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인으로서 경영과 투자에 매진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며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 회장을 만난 마포구 이웃 주민은 “유례없이 30도가 넘는 날씨가 이어져서 지쳐 있었는데 효성의 작은 도움이 이 여름을 나는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효성은 마포구 등 국내 사업장이 속한 지역 사회와 협력해 사랑의 쌀과 김장김치, 생활품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장학재단 후원과 어린이 과학교실을 운영 중이다.

또 장애인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을 위해 재활용품 판매점인 ‘굿월스토어 효성1호점’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했으며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기업도 지원하고 있다.

장애 어린이 음악교육과 장애아동으로 이뤄진 오케스트라도 후원하고 있으며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창덕궁 환경정화활동도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6.25참전용사 후원, 1사1묘역 봉사활동, 1사1병영 후원, 군부대 북카페 지원 등 호국보훈 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이탈자 막아라”... 알뜰폰, 게임 등 콘텐츠로 20·30 ‘정조준’

CJ헬로 인기게임 전용 요금제 출시 KT엠모바일 데이터 선택형 요금제 에넥스텔레콤 ATM기기사 폰 개통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알뜰폰 업계가 키즈폰, 게임 전용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미래 세대를 노리며 돌파구를 찾고 있다.

2일 CJ헬로는 게임사인 넷마블과 제휴를 맺고 기존 요금제보다 20% 저렴한 인기 게임 아이템을 제공하는 요금제를 내놨다. 헬로모바일 상품 경쟁력과 넷마블 게임 콘텐츠 시너지를 활용한 차별화 전략으로 신규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게임 콘텐츠와 결합한 전용 서비스를 출시하며 청소년·청년층을 겨냥한 차별화 행보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모두의마블 요금제’는 총 9종(유심 요금제 5종, 단말 요금제 4종)으로 고객들은 본인의 실제 사용량에 맞는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월 2만원대에 데이터 10GB(음성 100분·문자 100건)를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마블 USIM 10



모델이 ‘FIT 12 요금제’ 출시 소식을 알리고 있다. /KT엠모바일



모델이 ‘모두의마블 요금제’ 출시 소식을 알리고 있다. /CJ헬로

GB’를 비롯한 유심 요금제는 동일한 스펙의 헬로모바일 요금제보다 20% 가량 할인해 제공한다. 모두의마블 요금제에 가입하는 모든 고객에게는 2900개의 ‘다이아’ (게임머니)를 지급한다.

CJ헬로는 ‘모두의마블 유심 요금제’ 4종을 지난 1일 출시하고, 내달 초까지 전용 요금제를 차례로 선보일 계획이다.

같은 날 KT엠모바일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와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청년층을 겨냥해 고객이 원하는 음성과 데이터를 맞춰 쓸 수 있는 FIT 12 요금제를 내놨다. 알뜰폰 고객들이 가장 많이 사용

하는 음성 4개 구간(50분, 100분, 150분, 200분)과 데이터 3개 구간(2.4GB, 3.5GB, 5.0GB)을 제공하는 12가지 선택형 유심 요금제다. 기존 요금제 대비 데이터 제공량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알뜰폰 업계는 데이터 요금제를 강화하고 젊은 세대가 즐기는 게임 특화 요금제를 내놓는데 이어 알뜰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알뜰폰의 새 명칭 공모에도 나선 바 있다.

유통 채널도 다변화하고 있다. 에넥스텔레콤은 GS편의점, 다이소에 이어 최근 지하철 등에 설치돼 있는 ATM기기사

도 개통이 가능한 서비스로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알뜰폰 업계가 이같은 새 시도를 이어가는 이유는 최근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과 맞물려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7월 번호이동 건수는 48만70533건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와 비교해 약 15만 가량 줄어든 수치다.

문제는 가입자 순증을 기록한 이동통신사에 비해 알뜰폰은 가입자를 이동통신사에 내주며 지속적으로 가입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이동통신 3사에게 모두 가입자를 뺏겼다.

업계에서는 알뜰폰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서는 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이동통신사와 차별화 된 시도를 통해 생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주력 타깃층인 5060세대 보다는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는 경향이 높고, 미디어 콘텐츠를 즐기는 1020세대의 입맛에 맞는 서비스로 고객 잡기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LG전자가 2일 프리미엄 무선청소기 코드제로 A9에 새로운 컬러인 빈티지와인과 아이언그레이를 적용한 신제품 2종을 출시했다. /LG전자

LG전자 ‘코드제로 A9’ 와인·그레이 ‘새 컬러’

LG전자는 코드제로 A9에 각각 빈티지와인과 아이언그레이를 적용한 신제품 2종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새로운 컬러 2종은 고급스러우면서도 세련된 느낌으로 집안의 다른 가구들과도 잘 어울려 인테리어 효과를 높인다. 코드제로 A9의 색상은 기존 블랙, 판타지실버, 보헤미안레드 등을 포함해 모두 5가지로 늘어났다.

LG전자는 지난해 6월 코드제로 A9을 국내 시장에 처음으로 발표했다. 이 제품은 높은 인기를 얻으며 무선청소기 시장에서 빠르게 자리잡았다.

코드제로 A9은 해외시장에서도 순조로운 판매를 보이고 있다. 올해 초 대만, 호주, 이스라엘 등에 코드제로 A9을 출시했는데, 이들 국가에서 LG 무선청소기는 지난해보다 판매량이 2배 늘었다.

LG전자는 코드제로 A9에 적용하는 핵심 기술을 자체 개발했다. 일반적으로 모터는 크기가 커질수록 강한 흡입력을 내는데 LG전자는 모터 크기를 줄이면서도 강력한 흡입력을 실현했다. 코드제로 A9의 스마트 인버터 모터 P9은 지름이 9cm에 불과하다. LG전자는 청소기용 인버터 모터를 10년간 무상 보증하고 있다.

기존까지는 고객들이 청소기를 사용하다 보면 배기필터 쪽에 먼지가 쌓이고 공기의 흐름이 막힌다. 따라서 처음보다 흡입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느끼는 일도 있었다. 코드제로 A9의 2중 터보 싸이클론은 빨아들인 공기 속의 미세한 먼지까지 분리해줘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해 흡입력을 유지시킨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현대글로벌비스 휴가철 맞아 고속도로서 안전운전용품 세트 증정

현대글로벌비스가 휴가철을 맞아 8월 2일 강원도 인제 내린천휴게소, 3일 강원도 강릉 옥계휴게소에서 운전자들에게 안전운전용품 세트를 무료로 배포한다.

이번 행사는 현대글로벌비스가 나들이를 떠나는 고속도로 이용객과 장시간 차량을 운전하는 화물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양양고속도로에 위치한 내린천휴게소는 상·하행선에서 모두 진입 가능한 휴게소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이틀에 걸쳐 총 1만여 개의 안전운전용품 세트를 배포할 예정이다. 안전운전용품 세트는 졸음방지용 껌과 아이스팩, 휴대용 목베개, 차량용 햇빛 가리개 등 총 6종으로 구성됐다. 차량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품목들로 운전자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양성운 기자

“연료 센서 오류”... 페라리·람보르기니 ‘리콜 수모’

수입차 10종 270대 제작결합

BMW·페라리·람보르기니 등 수입차 10종, 270대가 제작결합으로 자발적 리콜을 한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BMW가 제작한 고성능 모델 M5 153대는 연료탱크의 연료레벨 센서가 연료 호스와 간섭을 일으켜 정상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된다. M5는 이 문제로 연료가 모두 소진되더라도 계기판에는 연료가 있는 것으로 표시돼 운전자가 연료량 확인을 못 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됐다.

에프એ메이가 수입·판매한 페라리 캘리포니아·458 이탈리아·458 스파이더·F12 베를리네타 등 5개 차종 78대는 폭발 위험이 제기된 ‘다카타 에어백’ 장착으



리콜되는 람보르기니 차종. /연합뉴스

로 리콜된다. 일본 다카타사가 제작한 에어백은 충돌 사고로 에어백이 펼쳐질 때 인플레이터(팽창장치)의 과도한 폭발력으로 금속 파편이 튀면서 운전자가 다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다카타 에어백 관련 사고로 최소 23명이 목숨을 잃고, 230명 이상이 부상한 것으로 보고됐다. 이 때문에 다카타 에어백은 ‘죽음의 에어백’으로 불리며 2013년부터 세계적으로 1

억대 이상 리콜이 이뤄지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판매한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LP700-4Coupe 등 4개 차종 39대는 엔진 제어 프로그램 오류로 리콜된다. 이들 차량은 공회전 상태에서 연료 공급 유량 조절 장치(퍼지 밸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제작사는 리콜 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리콜 시행 전 자비로 수리한 경우는 제작사에 수리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결합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합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정연우 기자 ywj964@

총당금만 가득쌓은 韓 은행, NPL비율 세계 최저수준

(부실채권)

우물안 **국내銀** **글로벌** **외국銀**

③ 자산 건전성

STX조선해양 살리기 투입 자금만 8兆
한계기업 '주채권 은행 구조조정' 문제
사업구조 재편으로 은행 리스크 줄여야

연간 수주 실적 세계 3위, 세계 수주 잔량 4위, 재계 서열 13위. 조선업이 호황이던 지난 2008년 STX조선해양이 거둔 성적표다. 10년 뒤인 2018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STX조선해양은 법정관리 문턱에서 겨우 살아 남았다. 이미 법정관리에 들어간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은 그야말로 '돈 먹는 하마'였다. 은행 등 채권단이 그동안 STX조선해양을 살리기 위해 투입한 자금만 8조원에 달한다.

대우조선해양·STX조선·금호타이어·한국GM 등 기업 부실이 터질 때마다 은행들은 빚폭탄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한계기업 문제를 20년째 주채권은행 주도의 재무적 구조조정으로 풀고 있는데 따른 문제다. 구조조정은 망한 기업을 살리는 게 아니다. 성장성이 낮은 사업은 축소·폐지하고 국내외 유망기업과 손잡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등 사업구조를 재편하는 작업이다.

그래야 채권단인 은행의 비용과 리스크가 줄어든다. 또 영업에 써야 할 돈도 총당금이란 명목으로 쌓아둘 필요가 감소한다.

◆부실채권 대비 총당금 탄탄

2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대표은행 합산부실채권(NPL)비율은 0.7%다. 미국과 같은 수준이다.

은행별로는 2017년 기준 KB금융 0.7%, 신한지주 0.5%, 하나금융 0.7%, 우리은행 0.8%이다.

글로벌 은행 평균 1.6%보다 건전한 구조다. 글로벌 주요은행 가운데 BNP파리바(4.8%)와 소시에테제네랄(5.0%), 방코산탄데르(4.35)의 NPL비율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유럽은 4.0%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부실채권에 대한 총당금 적립규모를 의미하는 NPL커버리지비율도 한국은 115%로 부실채권보다 총당금 적립액이 많다.

글로벌 주요은행 중 로이즈뱅크(28%)과 도이체은행(63%)의 NPL커버리지 비율 보다는 높고, 제이피모간체이스(212%) 및 시티은행(259%) 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국가별 주요은행 합산 기준으로는 미국과 중국은 178% 및 155%로 높은 반면 영국과 유럽은 49% 및 63%로 낮은 수준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부실채권에 대한 총당금 적립규모를 의미하는 NPL커버리지비율도 높다. 이 비율이 높으면 부실채권에 대해 총당금을 많이 적립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부실화가 추가로 진행돼도 은행 부담이 크지 않으며 향후 총당금 환입 가능성도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시중은행의 대손비용률도 좋은 편이다. 지난해 말 기준 KB금융의 대손비용률은 0.2%에 불과했다. 하나금융이 0.3%로 뒤를 이었다. 신한지주와 우리은행은 각각 0.4% 였다.

반면 일본 주요은행은 모두 마이너스(환입)였다. 로이즈뱅크, 도이체뱅크, 크레디트스위스 등도 낮은 대손비용률을 기록했다.

글로벌 주요 대표은행 국가별 대손상각비 추이도 일본은 2010년 이후 0% 수준으로 매우 낮은 반면 중국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한국은 2014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일본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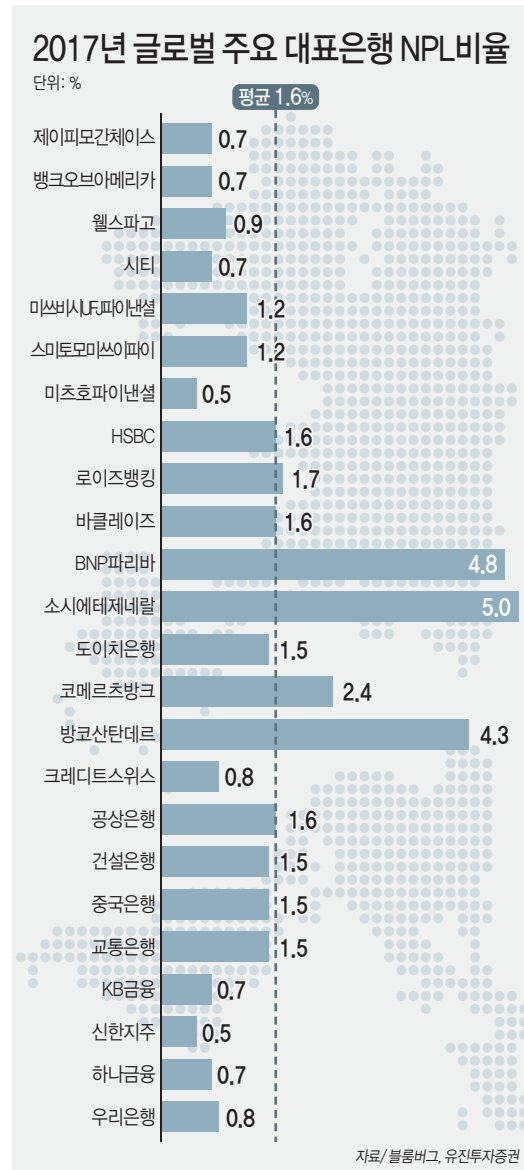
한국이 상대적으로 대손비용률이 낮은 이유는 자산건전성 개선 노력과 2014년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활성화 정책' 시행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높은 성장을 실현한 반면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대손상각비 부담이 큰 폭으로 감소한 탓이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2011년말 0.89% → 2013년말 0.61% → 2015년말 0.27% → 2017년말 0.17%).

◆관비 하락 추세

은행의 효율성 지표 가운데 하나인 관비도 낮아지는 추세다.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20.9%, 20.6% 증가한 관비는 지난해 1.6% 증가했다. 특히 한국 주요은행 명예퇴직 비용이 2015년부터 반영되기 시작, 2018년 이후부터는 명예퇴직 비용 축소와 명예퇴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별 주요 대표은행 임직원수 증감에는 차이가 나타난다. 대부분 국가에서 감소하고 있다. 특히 미국 2011년, 영국 2010년, 한국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낮은 국내성장률에 따른 대안으로 해외진출을 확대하면서 오히려 증가했다.



신한카드 쏘카 결제전용 신용·체크카드 출시

신한카드가 쏘카와 손잡고 '쏘카(SOCAR) 신한카드' 신용·체크 2종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쏘카 신용카드'는 쏘카 결제금액의 30% 할인이 적용된다. 할인전 승인금액으로 회당 9000원까지 할인(월 최대 할인 한도 2만원)이 가능하다. 월 할인회수는 전달 이용금액에 따라 3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은 1회, 60만원 이상 90만원 미만은 2회, 90만원 이상은 3회까지다.

철도 이용 시에도 결제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단, 일 1회 한도는 5000원으로 월 최대 2회까지만 가능하다.

스타벅스·커피빈·이디야·투썸플레이스·엔젤리너스·빽다방 등 커피전문점은 20% 할인 받을 수 있으며,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 등 쇼핑은 3%, GS25·CU·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은 각각 5% 할인 받을 수 있다.

'쏘카 체크카드'는 쏘카 결제금액의 10%를 할인해준다. 이밖에 CGV, 롯데시

네마, 메가박스 등 영화관을 이용할 때는 1만원까지 10% 할인 받을 수 있다. 철도 이용 할인 혜택은 5%다.

신용카드 연회비는 국내 1만3000원, 해외 1만6000원이며, 체크카드 연회비는 없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쏘카 회원과 차량 공유에 관심이 많은 고객에게 보다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양사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시너지 창출도 지속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5@



KEB하나銀 '오토론'

오토바이 구입비까지 지원

KEB하나은행은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인 '1Q 오토론'을 260CC 초과 오토바이 구입자금 용도까지 확대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1Q 오토론'은 신중증시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차 구입자금 대출이다.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 공인인증서 및 별도 어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24시간 편리하고 신속한 한도 조회와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KEB하나은행은 국내 오토바이 시장에 '가치소비' 지향 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손님의 소비성향에 맞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Q 오토론' 지원 대상을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오토바이에도 확대 제공기로 했다.

'1Q 오토론'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까지 차량 및 오토바이 판매가격 이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신청 가능하며 최저 연.3.948%(2018년8월2일 기준)의 금리가 적용된다. 1Q 오토론 오토바이 구입 지원 확대를 기념해 프리미엄 모터사이클 브랜드 '두카티 코리아'와 폴라보 이벤트도 진행한다. /김문호기자

신한銀 '쏠픽'으로 프로야구 구단전력 분석

(모바일 뱅킹)

승리팀 맞추기·퀴즈 등 이벤트 다양
팬들 위한 '베이스볼파크'도 오픈

신한은행은 모바일 뱅킹 쏠(SOL)에서 프로야구 경기 퀴즈 이벤트와 구단별 전력분석 데이터를 제공하는 '쏠픽(SOL Pick)'을 오픈했다고 2일 밝혔다.

KBO리그 메인스폰서 신한은행은 쏠에 프로야구 퀴즈·경품 제공 콘텐츠와 구단별 전력분석 데이터까지 탑재함으로써 KBO리그 예·적금, 경기 중 즉석 추첨 이벤트 '쏠타임(SOL TIME)', 매일 진행되는 '월간 MVP투표'에 이어 프로야구 관련 콘텐츠 라인업을 확대했다. 이 콘텐츠들은 모두 쏠(SOL) 내 프로야구 전용 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오픈한 '쏠픽(SOL Pick)'의 프로야구 퀴즈 콘텐츠는 경기가 진행되는 날 승리팀을 선택하는 '승리팀 맞추기'와 해당 일자 경기 내용 관련 퀴즈의 정답에 해당하는 1개 구단을 선택하는 '1:10 퀴즈'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 고객들은 승리팀을 맞출 때마다 점수를 획득할 수 있



며 5개 승리팀을 모두 맞추고 '1:10 퀴즈'까지 맞출 경우 가산점도 받을 수 있다.

퀴즈로 만점을 획득한 고객(최대 50명)에게 백화점 상품권 3만원을 매일 제공하며 매주 누적 점수를 합산해 1위 고객에게 기프트카드 50만원, 2~10위 고객에게 백화점 상품권 5만원, 11~100위 고객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제공한다. 또 16일까지 '쏠픽(SOL Pick)'에 10일 이상 참여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기프트카드 50만원, 백화점 상품권 5만원, 베스킨라빈스31 포인트

교환권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동시에 진행한다.

신한은행은 프로야구 팬들을 위한 종합 정보제공 모바일 웹 '신한 베이스볼파크(BASEBALL PARK)'도 함께 오픈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프로야구 팬들을 위해 신한은행의 개성을 반영한 야구 플랫폼을 개발했다"며 "KBO리그 메인스폰서로서 금융권의 한계를 넘는 다양한 야구 콘텐츠를 계속 개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NH농협銀 "가뭄·폭염 속 풍년을 기원합니다"

NH농협은행이 최근 가뭄과 폭염으로 지친 농업인과 국민들을 응원하는 '가뭄·폭염 극복 응원 SNS 이벤트'를 이달 말까지 농협은행 공식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진행한다. 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 2월부터 실시한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 국민 공감 캠페인'은 우박이나

인'의 일환으로 가뭄과 폭염을 극복하고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댓글로 작성하는 방식이다. 댓글 작성자 중 500명을 추첨하여 농협몰을 통해 홍로사과 5kg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농협은행이 펼치고 있는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 국민 공감 캠페인'은 우박이나

가뭄 등 자연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를 돕고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기획했다.

이대훈 은행장은 "농업인과 농촌을 응원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기획하였다"며 "은 국민의 공감과 응원에 힘입어 농업인이 가뭄이라는 악조건을 극복하고 올해 풍년 농사를 짓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ㅎㅎ

ㅎㅎ

ㅎㅎ

“
누가 이 아이들을
키워야 할까요?
”

아이는 혼자 자라지 않습니다
부모와 사회가 함께, 가정과 기업이 함께 아이를 돌보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성장한 아이는 가정과 사회를 튼튼히 하고, 나라의 경쟁력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웃을 수 있도록 하나금융그룹이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이
어린이집 100호 건립으로
함께 키우겠습니다

함께가 힘이다.
하나가 힘이다.

好실적에 평가순위 첫 3위권... 하반기엔 해외수주 '기대'

(시공능력 평가)

상반기 건설사 성적표

④ 대림산업

영업·정비사업 수주 등 국내 강제 해외수주 실적 없어 매출 감소 전망

'장사 잘 했다'.

대림산업은 올 상반기 호실적을 내고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한 계단 올랐다. 국내 정비사업 수주에서도 활약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냈다. 그러나 해외수주 실적은 현재까지도 '0(제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외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실적·시공순위·정비사업 '3박자'

2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림산업의 올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15.0% 증가한 2450억원이다. 매출은 2조8331억원, 순이익 2463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13%, 65% 증가했다.

건설사업부 영업이익은 155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3% 급증했다. 매출액도 2조185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 늘었다. 주택부문의 실적 성장



서울 종로 대림산업 본사.

/대림산업

지속되는 가운데 분양 호조와 도급 증가 효과 등이 반영된 영향이다.

2분기에도 실적 상승세는 이어졌다. 대림산업의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2250억원, 당기순이익은 225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7%, 116% 늘어났다.

호실적은 국내 주택사업 실적이 견인

했다. 지난 3월 취임한 박상신 대림산업 대표가 국내 주택사업을 이끌어온 전문가인 만큼 국내 주택사업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정비사업에서도 강세를 보였다.

대림산업은 지난 3월 인천 남구 도화1구역 재개발(3900억원)과 4월 부산 금정구 남산1구역 재건축(893억원)을 단독

로 따냈다. 5월엔 고려개발과 부산 영도구 대평1구역 재개발(1917억원) 시공권을 수주했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1191억원) 시공권은 현대엔지니어링과 공동으로 확보했다. 지난 6월엔 대구 서구 서대구지구 재개발(5732억원)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로써 대림산업은 올 상반기 실적 1조원을 돌파, 지난해 전체 정비사업 수주액 7866억원 규모를 이미 상반기에 넘어섰다.

대외신인도도 높아졌다. 대림산업은 올해 처음으로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에서 업계 3위에 올라섰다. 시공능력 평가는 발주자가 적절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공사 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및 신인도 등의 종합평가다. 대림산업은 시공능력평가액이 9조3720억원으로 삼성물산, 현대건설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대림산업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15년부터 매년 한 계단씩 오르고 있다.

◆해외수주 실적 '0'

그러나 해외 사업에선 부진한 모습이다.

대림산업은 올 상반기 해외수주를 한 건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달엔 러시

아 옴스크 정유공장, 쿠웨이트 머큐리 가스 베드 수정 작업 엔지니어링 용역 서비스 등 정유 관련 사업 2건을 수주했다. 플랜트나 토목 등 건설 부문에선 여전히 해외 수주 제로 상태인 셈이다.

아울러 이란 이스파한 정유공장 개선공사(19억 달러) 계약을 지난 5월 말 해지하면서 수주잔고도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대림산업은 당초 올해 해외 신규 수주 목표액을 1조원으로 낮춰 잡았으나, 현재까지의 실적을 보면 이마저도 달성이 힘들 전망이다.

수주잔고 급감으로 인한 매출 감소 전망에 주가도 약세다.

대림산업의 주가는 올 1월 25일 8만9400원까지 올랐다가 3월엔 7만2000원까지 떨어졌다. 지난 1일엔 7만90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유안타 증권 김기룡 연구원은 "대림산업은 2017년에 이어 올해도 해외 수주 부진이 이어질 전망이다"이라며 "자연되고 있는 사우디 마덴 암모니아 1조원 외에는 연내 의미 있는 수주 가능한 해외 프로젝트가 부재한다. 해외수주 잔고 확보가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한화건설이 지난 1일 국내 모든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혹서기 3대 이행수칙' 시행 점검을 완료했다. 사진은 보건관리자가 체온 및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모습. /한화건설

한화건설

혹서기 이행수칙 점검 완료

한화건설이 국내 모든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혹서기 3대 이행수칙' 시행 점검을 완료했다. 2일 한화건설에 따르면 약 2주간 진행된 이번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건설근로자의 혹서기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강조하는 물, 그늘, 휴식의 3대 수칙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한화건설은 우선 물 항목 점검을 통해 현장 곳곳에 깨끗한 물과 식염정(포도당)이 제공되는지 확인했다. 또 제빙기 등을 설치해 얼음을 제공하고 열사병 등의 온열질환 발생을 예방하도록 했다.

그늘 항목에서는 차량 및 낙하물 등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그늘진 장소(근로자 휴게소)가 배치돼 있는지 점검했다. 햇볕 차단과 통풍이 제대로 이뤄지는 지도 확인했다. 아울러 대형 선풍기와 에어컨, 의자, 음수대 등의 휴게시설을 충분히 비치하도록 독려했다. 휴식 항목에서는 폭염 특보(폭염주의보 및 폭염경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5분 이상 휴식을 전 현장에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현장별로 '아이스크림 데이' 등의 이벤트와 수시 체온측정 등 건설 근로자 건강관리활동을 적극 장려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화건설은 이번 혹서기 안전보건관리 점검에서 '광고 컨벤션 꿈에그린', '인천 서창 꿈에그린' 건설현장을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전사적으로 사례를 공유했다. /채신화 기자

연내 강남3구 2594가구 일반분양... '로또 청약' 기대감↑

전년동기비 2.5배 많은 물량
세부담에 가수요·갭투자 급감

〈연내 강남3구 분양예정단지 현황〉

시기	위치	단지(사업명)	총가구	일반분양	전용면적 (㎡)	건설사
11월	서초구 반포동 32-8(삼호가든 3차)	삼호가든 3차 재건축	835	219	49~136	현대건설
10월	위례신도시 A1-6블록(송파권역)	위례신도시 A1-6블록	494	494	105~130	계룡건설
11월	강남구 개포동 189(개포주공4단지)	개포주공4	3,320	239	59~132	GS건설
11월	서초구 방배동 1028-1(경남아파트)	방배경남	759	269	미정	GS건설
11월	강남구 일원동 690-1(일원대우)	일원대우 재건축	184	63	59~121	현대건설
12월	송파구 거여동 거여마천뉴타운 2-1구역	거여2-1	1,945	748	미정	롯데건설
12월	서초구 서초동 1335(무지개아파트)	서초무지개	1,481	215	43~119	GS건설
하반기	서초구 서초동 1336(서초우성1차)	래미안 리더스원	1,317	232	59~238	삼성물산
하반기	강남구 삼성동 19-1(상아2차)	상아2차(래미안)	679	115	59~149	삼성물산

*분양시기 및 가구수, 전용면적은 건설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음. /자료=부동산인포

8월 이후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 분양이 상반기 청약열기를 이어갈 지 주목된다.

강남3구는 기존 아파트값 상승률이 서울 평균을 웃돌고 있는데다 분양가 규제가 이어져 '로또 분양'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보유세, 양도세 등 세부담이 가중돼 가수요, 갭투자가 급격히 사라지는 추세다. 따라서 서로 상반된 이슈가 충돌하는 시점에서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바로미터로 작용할 전망이다.

2일 부동산인포가 부동산114 아파트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나온 정부의 8·2대책 규제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2017년 7월 말~2018년 7월 말)간 강남3구의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17.72%를 기록해 서울 평균(14.73%), 강남3구 제외(12.84%)보다

크게 웃돌았다. 올해 7월말까지 9.75%의 변동률을 기록해 역시 서울 평균(9%)과 강남3구를 제외(8.51%)한 지역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기존 아파트값 상승과 달리 분양아파트의 분양가 규제로 분양가 인상폭이 제한되고 있다"며 "강남3구 분양아파트는 중도금대출 제한으로 자금력이 충

분한 수요자들이 청약할 수밖에 없고, '뽐뽐한 한 채'가 강조되는 분위기여서 새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말까지 서울 강남3구에서는 2594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작년 동기(1048가구) 대비 2.5배 많다. 안전진단 강화, 증고제한, 초과이익환수 시행 등의 규제로 재건축 사업 추진이 원활

하지 못할 경우 강남3구에서는 신규아파트 분양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삼성물산은 서초구 서초동 우성1차 아파트를 헐고 1317가구(일반 232가구)를 짓는 래미안 리더스원,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 아파트를 헐고 679가구(일반 115가구) 규모의 래미안 아파트를 분양할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 3차 아파트를 헐고 835가구(일반 219가구), 강남구 일원동 일원대우아파트를 헐고 185가구(63가구)를 짓는다.

GS건설은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4 단지를 헐고 3320가구(일반 239가구), 서초구 방배동 방배경남아파트를 헐고 759가구(일반 269가구), 서초구 서초동 무지개아파트를 헐고 1481가구(일반 215가구)를 짓는다.

이외에 롯데건설은 송파구 거여마천 뉴타운 2-1구역을 재개발 해 1945가구(일반 748가구)를, 계룡건설은 위례신도시 A1-6블록에 494가구를 연내 공급할 예정이다. /이규성 기자 peace@

미래에셋-네이버, 그랩에 1억5000만 달러 투자

동남아 최대 모바일 플랫폼 진화 기대
기업-시장 가교역할... 진출 기회 노력

미래에셋-네이버 아시아그로스펀드는 1조원 규모의 펀드 결성 후 첫 투자로 동남아 승차공유시장 1위 업체인 그랩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규모는 1억 5000만 달러다.

그랩은 우버의 동남아 사업을 인수하면서 동남아 승차공유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현재 동남아 8개국 500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우월한 교통서비스 사업자 지위와 동남아 최초 1억명 이상의 모바일 사용자를



바탕으로 식품, 배송, 모바일 결제, 금융 서비스 등의 서비스까지 확대하고 있어 향후 동남아시아의 최대 O2O(Online to Offline) 모바일 플랫폼으로 진화가 기대된다. 올해 10억 달러 이상의 연간 매출이

예상되는 동남아 최대 모바일 플랫폼 기업이다. 그랩의 주요 주주로는 소프트뱅크, 디디추싱 등이 있으며, 이번 투자에는 토요타, 오픈하이퍼펀드, 평안캐피탈 등 세계 유수의 투자자들이 함께한다.

미래에셋은 네이버와 지난 3월 50%씩 공동 출자해 2000억원 규모의 미래에셋-네이버 아시아그로스펀드를 처음 결성했으며, 7월 1조원으로 증액을 마무리했다. 미래에셋캐피탈이 운용을 담당하며, 유망기업 발굴과 검증에 미래에셋과 네이버의 글로벌 네트워크도 참여한다.

미래에셋-네이버 아시아그로스펀드는 동남아시아, 인도, 중국 등의 성장성이 높은 국가에서 전자상거래, 인터넷 플랫

폼, 헬스케어, 소비자재, 유통, 물류 등 기술의 발전과 소득증가로부터 장기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의 기업들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펀드는 금융과 IT회사가 공동 투자하는 특성을 살려 재무적인 투자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아시아 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들과 현지 기업, 시장과의 가교 역할을 진행하며,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에 새로운 기회도 만들어갈 계획이다.

정지광 미래에셋캐피탈 신성장투자본부장은 "이번 투자는 급성장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승차공유와 O2O 모바일 플랫폼에 대한 투자"라며 "향후 미래에셋과 네이버는 다양한 전략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호 기자 kmh@

“여자라서 안돼” 임금 등 고용 차별… 미투는 진행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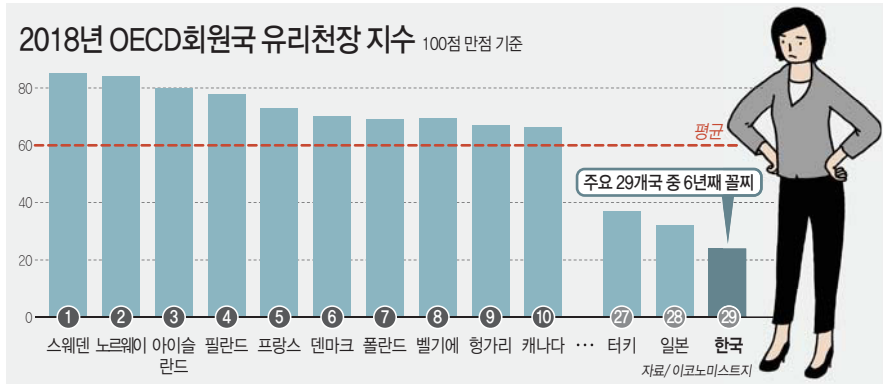
실패의 경제

렌트싱킹과 집단이기

(지대주)

(13) 깨지지 않는 유리천장

2016년 女 경제활동 참가율 58.4%
임원 여성차지 비율 OECD ‘꼴찌’
남직원 노골적 ‘시선강간’도 문제



정부가 ‘남녀평등 사회’를 외치고 있지만 현실에서 ‘남녀 차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고용, 승진, 임금, 업무 배치 등에 있어서 은연중에 성차별이 나타나고 있다.

통계만 봐도 우리나라의 남녀 차별 문제는 쉽게 드러난다. 2016년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8.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가운데 31위다. 한국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79% (18위)로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가 낮을수록 평등함을 의미하는데 평등과는 거리가 먼 수치다.

최근에는 채용 과정에서 남성 지원자를 많이 뽑기 위해 여성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관행을 일삼던 금융권의 채용 비리가 불거지기도 했다.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정부는 지난달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47곳에 대해 집중 근로감독을 한다고 밝혔다.

2일 정부에 따르면 남녀고용 평등법상 성차별 금지 규정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채용에 있어 남녀 근로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는 여성근로자를 모집 채용함에 있어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하는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라는 문구가 고스란

히 담겨있다.

그러나 법엔 이런 내용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현실에선 무용지물이다.

얼마 전 기업 면접을 봤다는 A씨는 “남녀가 같이 면접장에 들어갔는데 여자들에게만 입사와 관련 없는 성적인 질문을 던져서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채용하는 입장에서 여성의 결혼, 출산 문제 등의 이유로 업무의 지속성이 우려가 되기도 하겠지만 그걸 드러내고 차별하는 게 정상적인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은행에 근무하는 B씨는 “열심히 준비해 은행에 들어갔지만 일을 하다보니 승진에 있어서도 여성이라는 한계가 명확

히 드러난다”며 “여성이라는 이유로 중요한 일을 맡기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산업노조에 따르면 5대 은행에서 2차 정규직 신규 채용 인원 중 여성 비율이 8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정규직은 고용형태는 정규직이지만 일반 정규직과는 차별이 있는 정규직을 가리킨다.

은행 입사를 준비 중인 C씨는 “물론 우수한 남자 지원자도 많지만 합격자 스펙을 보면 여자는 남자에 비해 스펙이 월등히 좋아야 뽑힐까 말까”라며 “여자가 직업적으로 성취를 이루면 독하다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 자체도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회사 대표들이 사석에서 성차별 채용 문제를 두고 ‘이래서 여자를 안 뽑으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들은 적이 있어 두렵다”고 밝혔다.

한국의 기업 임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현저히 낮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가 매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유리천장 지수에서도 우리나라는 주요 29개국 중 꼴찌였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째 꼴찌를 유지하고 있다.

채용의 문을 통과해 들어간 회사 내에서도 성차별과 성추행 문제는 빈번하게 일어난다. 중견기업 사무직에 근무하는 D씨는 “제 주변 여직원들은 웃도 편하게 못 입고 다닌다”며 “반바지를 입으면 위아래로 훑어보는 남자직원들의 노골적인 시선이 불쾌하다”고 말했다. 이런 경험을 했다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자 ‘시선 강간’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다.

대기업에 다니는 E씨는 “아침마다 ‘커피는 여자가 타줘야 맛있는데’라고 말하는 남자 상사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이럴려고 힘들게 취업했나’ 하는 자괴감이 든다”고 밝혔다.

대학병원 간호사 F씨는 “회식자리에서 원장이 허벅지를 만지면서 ‘남자친구는 좋겠다’고 말하는데 정말 수치스러웠다”고 고백했다. 또 다른 간호사 G씨는 “환자들의 경우에도 남자인 나에게도 조용한데 유독 여자간호사에겐 소리치고 물건을 던지는 모습을 많이 봤다”며 “소수의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일을 자주 목격하다 보니 직업 자체에 회의감을 느끼는 여성 동료들이 많다”고 밝혔다.

靑 “文 대통령, 리비아 납치 첫날 ‘구출’ 지시”

청와대는 리비아에서 지난달 6일 한국인 1명이 무장단체에 납치돼 억류 상태인 것과 관련, “정부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 그의 안전과 구원을 위해 리비아 정부 및 필리핀,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피해자로 추정되는 한국인 포함 4명의 동영상이 공개된 점을 거론하며 “리비아에서 납치된 우리 국민이 한 달이 다 돼서야 생존 소식을 전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는 (동영상에서) ‘대통령님, 제발 도와주세요. 내 조국은 한국입니다’라고 말했다”며 “그의 조국과 그의 대통령은 결코 그를 잊은 적이 없다. 납치된 첫날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 구출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졌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그를 납치한 무장단체에 대한 정보라면 사막의 침묵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며 “특히 아덴만에서 임무 수행 중이던 청해부대는 수에즈 운하를 거

쳐 리비아 근해로 급파돼 현지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그의) 얼굴색은 거칠었고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다친 곳은 없어 보여 참으로 다행이다”라며 “나로 인해 아내와 아이들의 정신적 고통이 너무 심하다”는 말에서는 오랜 기간 거친 모래바람을 맞아가며 가족을 지탱해온 아버지의 책임감이 느껴진다. 총부리 앞에서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막 한가운데 덩그러니 내던져진 지아비와 아버지를 보고 있을 가족들에게는 무슨 위로의 말을 전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하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우리는 그가 타들어 가는 목마름을 몇 모금의 물로 축이는 모습을 봤다. 아직은 그의 갈증을, 국민 여러분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의 노력을 믿고 그가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빌어주시기 바란다. 그렇게 마음을 모아주시면 환송기 소나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진에어 직원이 범법자냐… 우리도 생존권을”

면허취소 반대 두번째 집회 개최

진에어가 면허취소에 반대하는 두 번째 집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노동조합 설립을 공식화했다.

진에어는 지난 1일 저녁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진에어 직원 생존을 위한 대국민 호소대회’를 열고 가까운 시일 내 노동조합을 출범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집회는 37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도 400여명의 참석자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땀을 흘리며 면허취소에 반대하는 내용과 총수일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다.

집회에 참가한 승무원 A씨는 “국토부의 잘못된 법집행과 해석에 반대한다”며 “항공사업법 9조에 의하면 외국인 대표이거나 임원수의 절반이상인 법인이면 면허취소를 받게 되지만 진에어에 외국인 임원은 50%미만이다”고 토로했다.

A씨가 밝힌 항공사업법 9조 ‘면허결격사유’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표이거나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법인이거나 임원 중에 외국인이 있는 법인일 경우 면허결격 사유에 해당하지만 A씨는 이 두 개 조항이 결격사유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은 모순이라고 전했다.

김동연 “8대 핵심선도사업에 30兆 투자”

(2022년까지)

초연결 지능화·스마트공장 등 벤처지주사 규제개혁도 추진

정부가 2022년까지 8대 핵심선도사업에 30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8대 핵심 선도사업은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등이다.

또한 최근 재계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설립 요구에 따라 이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벤처지주사 규제개혁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3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혁신성장 추진계획, 공유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플랫폼 경제 활성화 방안과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유경제는 해외에서는 활성화돼 있는데 국내에서는 진입규제로 사업이 곤란한 경우가 일부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위워크 서울역점에서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신서비스 창출을 통해 국민 후생을 증진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만큼, 토론결과를 바탕으로 이른 시일 내에 정부의 방향을 마련해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점검회의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략적 투자분야를 선정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금 투자를 하지 않으면 뒤처지거나 한발 앞서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 있다”며 “플랫폼 경제와 관련해 데이터·AI, 수소

경제, 블록체인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책임장관제 도입과 광역 지자체장과의 연석회의가 언급됐다.

김 부총리는 “8대 선도사업과 규제혁신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이 소명의식을 갖고 책임을 지는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재계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설립 요구에 이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벤처지주사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지원’ 이달 내 윤곽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이달 내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무총리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확정 고시를 앞두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기존 발표 과제 중 효과가 큰 과제를 선별해 기간연장·규모확대 등을 모색하는 한편, 현장목

소리를 반영한 추가 지원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폭염이 계속되는 데 따른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을 재점검했다.

아울러 전력수급 관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 태스크포스를 활용해 전력수급을 검증·발표하게 하고, 수요급증 가능성에 따라 불시장애에 대한 대응 등 공급 측면의 리스크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이 총리는 “8월 중순까지는 철저한 전력수급 관리가 필요한 만큼 산업부와 국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조정실이 당분간 일일 점검하는 자세로 이를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승호 기자)

외국증권사 분석서 제외된 ‘은행업’… 투자매력 상실?

UBS·CS 국내 은행권 보고서 멈춰 리서치 커버리지 중단하는 IB 증가
시장에서는 국가 연구기관보다 외국계 보고서 신뢰 커, 우려 ↑

“또 당했다. 왜?”

지난해 11월 26일(현지시간) 증시에서는 탄식이 쏟아졌다. 외국계 증권사 보고서 하나 때문에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5.08% 급락한 263만2000원에 마감했다. 하루 새 시가총액 18조원이 날아갔다. 코스피는 1.44%나 추락했다. 이날 모건스탠리는 “메모리 사이클이 상승기에 접어들며 삼성전자 주가가 2016년 1월 이후로 120% 가량 올랐다”며 “이제 2018년에 접어드는 지금 잠시 쉬어갈 때가 됐다”고 전했다.

모건스탠리는 투자자의견을 기존 ‘비중 확대(overweight)’에서 ‘중립(equal-weight)’으로, 목표주가는 29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호환마마보다 더 무섭다는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이 국내 은행권에 대한 리서치 커버리지(기업·업종 분석)를 잇달아 중단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외국계 보고서에 대한 신뢰가 국가 연구기관보다 큰 터라 부정적인 영향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2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유럽계 증권사인 UBS와 크레디트스위스(CS)가 각각 지난 2월과 6월에 국내 은행권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중단했다.

국제금융센터 주혜원 연구원은 “올해 들어 한국 은행권 리서치 커버리지를 중단하는 IB들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부정적 시그널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외국계 보고서의 영향력이 워낙 커서다.

삼성전자의 예에서 그 입김을 짐작할 수 있다.

1994년은 삼성전자가 반도체사업에 뛰어들어 이후 최대 호황을 맞은 시기다. 주가도 사상 처음으로 10만원대에 진입했다. 그러나 반도체 공급과잉이란 메릴린치의 보고서로 삼성전자 주가는 8만원대로 급락하는 조정을 경험했다. 공급과잉 논란

에도 삼성전자의 성장은 이어졌고, 95년 10월에는 주가가 17만원대까지 치솟았다.

2013년에도 삼성전자는 JP모건, 모건스탠리 등 외국계 증권사의 잇따른 하향 평가로 주가가 10% 이상 급락했다. 그해 6월 1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는 랙스 칼럼을 통해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이 “예상을 할 수 있었지만 이해할 수는 없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외국계 증권사들의 전망에 따라 국내 경제도 춤을 췄다.

실제 유럽계 증권사인 UBS가 외화 유동성 경색을 겪었던 지난 2008년 11월에 2009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을 3%로 낮추자 바로 다음 날 채권 금리는 곧바로 치솟았다(채권값 급락). UBS의 이러한 전망치는 삼성경제연구소 등 국내 경제연구소의 예상치(3.6~3.8% 수준)와 큰 차이가 났다.

한 외국계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인력이 적은 외국계 증권사는 커버(분석)하는 업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IB들은 워낙 글로벌한 업체가 많은 데다 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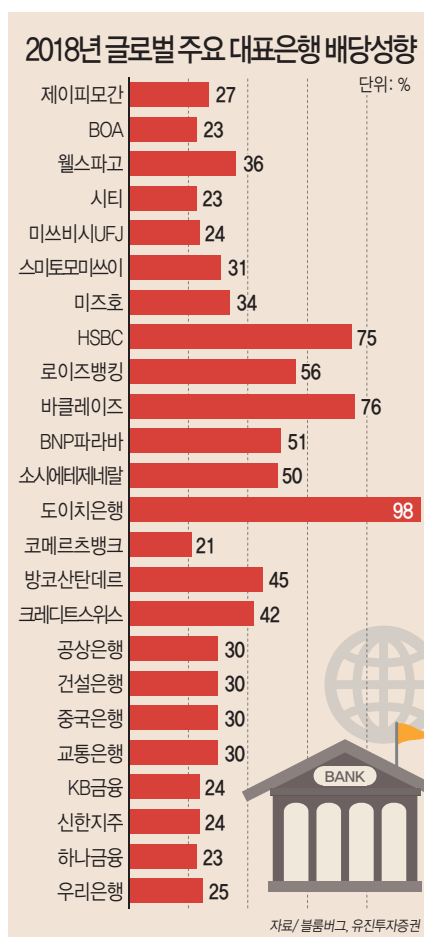
안 개구리 수준인 국내 은행들의 영업방식 때문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리서치도 영업의 한 방편이다. 국내 은행들의 짠 배당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며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이다.

다만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은행의 낮은 수익성과 배당성향 등에 발을 빼고 있다는 것. 실제 현재 주요 은행들의 평균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63배 수준이다. 지난 2016년 0.5배(하나 0.4배, KB 0.5배, 우리 0.5배, 신한 0.6배) 보다는 좋아졌다. 하지만 아시아 은행권(일본 제외) 평균 PBR 1.4배(2016년 기준) 보다는 낮다.

국내 은행권 한 관계자는 “국내 은행의 수익성이나 자산 건전성에 문제라기보다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조정과 관계가 있어보인다”면서 “해외 투자자 자본 유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주의 깊게 살펴볼 방침이다”고 전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코스피 8일 만에 최저... 2270선대 하락 마감
코스피지수가 전 거래일(2307.07)보다 36.87포인트(1.60%) 내린 2270.20에 마감한 2일 오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790.25)보다 8.87포인트(1.12%) 내린 781.38에,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120.6)보다 5.5원 오른 1126.1원으로 종료했다.
/뉴스1

증권거래에 블록체인 도입엔 보안↑ 비용↓

금감원 해외증권거래사 사례 분석
공적시장에도 기술 도입여부 검토

해외 증권거래소가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증권거래시스템의 관리업무 비용 절감과 거래기록 신뢰 향상에 힘쓰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거래원장 분산저장으로 거래 기록의 보안성과 투명성이 올라가고 비용도 절감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핀테크지원실이 2일 내놓은 ‘해외 증권거래소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미국 나스닥과 영국 런던증권거래소(LSEG), 캐나다 토론토 증권거래소(TMX), 호주증권거래소(ASX) 등은 블록체인 기술을 점진

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참여자가 공동으로 분산된 거래정보를 검증하고 기록 보관하기 때문에 중앙집중기관의 관리없이도 거래기록을 믿을 수 있는 기술이다.

미국 나스닥은 2015년 12월 사적 시장(private market)에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인 ‘나스닥 링크’를 도입해 비상장주식 발행에 성공했으며 2016년에는 위임투표 등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했다.

또 장외주식 호가 게시와 매매 상대방 탐색, 거래 협상·결제, 장외증권 청산 업무에도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도입했다.

현재는 공적 시장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지 검토하고 있다.

영국 런던증권거래소와 캐나다 토론토

증권거래소는 증권 거래 청산·결제 및 주주투표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지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모든 기록을 사용자들에게 분산저장하기 때문에 낮은 처리속도, 용량 등 다양한 한계가 있다. 또 거래 착오나 실수시 수정이나 정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근우 금감원 핀테크지원실장은 “블록체인 기술 적용 업무를 명확히 하고, 장기계획을 수립해 프로젝트별로 추진해야 한다”며 “업권과 기관 경계 없이 증권거래 전 영역에서 블록체인 관련 프로젝트를 발굴·검토하고, 글로벌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등 기술 표준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선진국 경기, 韓수출 둔화세 등 영향 줄어”

한국은행 BOK경제연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경기 변화가 한국의 대(對) 선진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일 한국은행의 BOK경제연구 ‘선진국 수입수요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최문정·김경근)에 따르면 G7국가의 수입수요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 탄력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탄력적(2.22)이었으나 위기 이후 비탄력적(0.90)으로 변화됐다.

여기서 말하는 G7국가는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이다. 수입수요에 대한 수출 탄력성은 수입수요가 1단위 늘었을 때 수출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나타낸 수치로, 1보다 크면 탄력적(수출이 수입수요에 민감하게 반응), 작으면 비탄력적이라는 의미다.

과거에는 G7 국가의 수입수요가 1%포인트 오를 때 한국의 대 G7 수출 증가율이 2.22%포인트 올랐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증가율이 0.90%포인트에 그친다는

뜻이다.

수입수요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에는 선진국의 민간소비 위축이 우리 수출증가율을 감소(탄력성 6.36)시켰고, 위기 이후에는 선진국의 공공소비(정부지출 등) 증대가 우리 수출증가율 증가를 주도(탄력성 1.93)한 것으로 나타났다.

G7국가의 투자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은 위기가전까지는 탄력적(1.02)이었으나 위기 이후 비탄력적(0.62)으로 변화하면서 전체적인 수출의 소득탄력성 저하를 초래한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이들 국가의 수출이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위기 전후 모두(탄력성 0.99) 큰 변화 없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수요에 대한 우리의 대 선진국 수출의 소득탄력성은 구조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경기의 변화가 우리의 대 선진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은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희주 기자 hj89@

국민연금 2056년에 고갈... 보험료 인상 ‘만지작’?

국민 거부감 커 인상 쉽지 않을 듯
연금수령 연령 높이는 방안 예상

저출산·고령화 심화, 경제성장률 둔화 등의 영향으로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3~4년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보험료 인상설이 제기되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등을 꾸려 시작한 4차 재정추계작업을 현재 거의 끝낸 상태다. 최종 정리를 거쳐 이달 17일께 공청회 등을 열고 공개할 예정이다.

4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6~2057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2060년에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던 2013년의 3차 재정추계 때보다 3~4년이 앞당겨진 것이다.

2018년 5월 말 현재 634조원 규모의 기금적립금은 2040년대 초반 2500조원까지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불어났지만 이후 연금급여 등 지출증가가 이어지면서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3%를 밑도는 경제성장률 전망도 원인 중에 하나다.

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으려면 보험료를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이미 3차 재정계산 때 2060년까지 수지 적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현재 9%에 묶여있는 보험료를 2017년부터 14.3%로 올려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

은 바 있다. 또 2060년까지 적립 배율을 2배와 5배로 유지하려면 2017년부터 보험료를 10.2%, 11.4%로 각각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4차 재정계산에서 재정추계위는 국민연금 고갈을 30년가량 늦추려면 보험료를 13%대로 올려야 할 것으로 추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보험료율보다 4%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국민적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험료율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보험료를 올리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여야 정치권이 부담을 느껴 번번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올리지 않더라도 국민연금이 재정적으로 장기간 지속할 수 있게 연금수령 나이를 지금보다 더 늦추거나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를 현행 연금수령 연령(만 65세)에 맞춰서 65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5년 정도 더 연장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희주 기자

지금은 소형 오피스 · 오피스텔이 투자자대세!

**실투자금
1억에 4개!**

**송도역 복합환승센터 KTX(2021년) · 송도 테마파크(2020년)
교통프리미엄과 4만 임대수요 최대수혜지!**

청량산과 서해바다가 눈앞에 펼쳐지는 송도 옥련동 최고의 명품 조망권과 송도테마파크 미래비전을 담은 '송도 파크뷰 오피스텔' 을 당신께 선물합니다.

PARKVIEW
송도 파크뷰 오피스텔



ChosunMedia 조선일보
"전용면적 60㎡ 이하 오피스텔을 노려라"
오피스텔 시장에서는 통상 전용면적 60㎡ 이하를 소형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60㎡ 이상 중형 오피스텔은 동일 면적 아파트에 비해 내부 설계나 입주 편의시설이 크게 떨어져 수요자 확보가 쉽지 않다. 월세 수익률도 소형보다 낮다. 예를 들어 전용 23㎡와 27㎡가 있다면 23㎡를 택하는 것이 좋다. 분양가격은 27㎡가 조금 더 비싸겠지만 준공 후 임대료에는 차이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전용 60㎡ 이하의 세계 혜택도 있다. 전용 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으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단,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취득세가 200만원 넘으면 85% 면 감면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2018년 05월 15일

- 옥련동 최고 조망권 확보** 분리형 1.5룸/2룸
- KTX·수인선** 더블역세권 인천의 교통중심
- 놀이시설** 워터파크, 호텔 등 송도테마파크 계획
- 희소성 높은 소형평면** 공실률 걱정 ZERO

송도역 복합환승센터 (2021년)
KTX
부산까지 2시간!

- 오피스 96실
- 오피스텔 112실
- 상가 16실

송도의 교통특권과 미래비전을 먼저 누린다!



7200억원 투입, 송도 테마파크 2020년 개장 예정! 놀이거주, 워터파크, 리조트 등 멀티 콘텐츠 테마파크 49만㎡ 규모, 2020년 예정, 업계중사자 4만여 임대수요 확보	KTX 송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하루이용객 2~3만 명 예상되어 인천 상권의 새로운 중심으로 도약, 인천발 KTX 개통 시점인 2021년 예정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휴양단지, 송도 골든하버 쇼핑,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레저 데스티네이션이 하나로 복합화 된 럭셔리 관광휴양단지	문화관광시설 중심지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인천시립박물관, 가천박물관, 송도 국제신도시 등 연간 30만명 관광객 유입
인천항 신 국제여객터미널 (2019년 예정) 2016년 착공 2019년 준공예정, 총 40만평 규모(항만시설 22만, 지원시설 18만)	가깝게 누리는 생활 인프라 송도 꽃게거리 바로 앞, 반경 2km 이내에 CGV, 롯데마트, 도서관, 해양공원, 은행 등이 위치

인천의 新 교통 중심지! 전국 어디로든 통하는 특급 교통망
송도역 역세권 인천발 KTX 송도역에서 경부고속철도까지 연결! 부산까지 2시간대! 2021년 개통예정
수인선 10분거리 수인선 송도역 10분거리, 인천1호선과 국철1호선, 4호선과 이어지는 명품라인
어디로든 통한다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 제2경인고속도로 등으로 전국, 전세계로 뻗어나가는 교통망!

문의 전화 1899-6333

합리적인 분양가에 최고급 풀퍼니시드 시스템까지!

일umin 세탁기, 일umin 냉장고, LG 43인치 TV, 에어컨, 가스레인지, 오븐

다시도어, 전가벽면, 일umin 세탁기, 일umin 냉장고, LG 43인치 TV, 전가벽면, 전가형 냉방시스템 에어컨, 드레스룸용기, 전가형 냉방시스템 에어컨

‘21兆’ 사우디 원전 수주戰... 선봉에 선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사우디, 예비사업자 5개 국가 선정
김종갑 사장, 알 술탄 원장과 면담
현지화·인력양성 등 이행방안 수립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사우디아라비아가 총 21조원 규모의 원자력발전소 2기를 지을 예비사업자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 국가를 선정하면서 한국전력이 적극적인 수주전에 나섰다.

한국전력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알 술탄(Dr. Al-sultan) 왕립원자력·신재생에너지원(K.A.CARE King Abdullah City for Atomic and Renewable Energy) 원장 등과의 면담을 통해 신규 원전건설사업 수주활동을 전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종갑 사장은 알 술탄 원장과 만나 신규원전 사업수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한전의 사업수행 준비현황을 설명하고 원자력 및 신재생 분야에서의 양사간 협력방안을 협의했다.

이번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은 최근 한전이 2800MW 규모의 사우디 신규원전 건설 프로젝트의 예비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경쟁국과의 치열한 수주전에서 우위를 잡기 위한 행보다.

앞서 지난달 한국전력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신규 원전건설의 예비사업자로 선정됐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과 러시아, 중국, 프랑스 등이 예비 사업자로 선정, 향후 사업조건 협상을 통해 최종 사업자가 결정될 예정이다.

사우디 신규원전사업은 세계원전시장에서 2009년 UAE원전사업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왼쪽부터)태중훈 한전 해외원전사업처장, 김종갑 한전 사장이 알술탄 K.A.CARE 원장과 사우디 신규 원전 사업수주를 위해 양사간 협력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한국전력

선정한다.

사우디측은 당초 입찰 1단계에서 2~3배수의 예비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모든 입찰국들이 사우디측 최소 요구조건을 만족했다고 판단, 5개국 모두를 예비사업자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사업자가 발표된 이후 한전은 정부와 함께 발빠른 대응체계를 구축해 2단계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참석하에 한전 서울아트센터내

사우디원전지원센터 개소식을 거행하고 원전산업계 대표들과 함께 원전수출전략 협의회를 개최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사우디원전사업 수주기반을 다지고자 현지화, 인력양성 등 사우디측의 핵심 관심분야에서의 실질적 이행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올 하반기 사우디 현지 로드쇼를 개최하고 양국 기업간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행 가능한 현지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본격적 입찰

2단계 시작에 따라 앞으로 사업수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사우디 원전사업 수주를 통해 UAE 바라카 원전에 이은 신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공조하고 원전산업계의 역량이 결집된 Team Korea 체제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경쟁국들 또한 사우디 원전사업 수주를 중동내 영향력 확보를 위한 발판으로 삼기위해 적극적인 수주활동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경쟁국들과 치열한 수주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아랍에미리트 원전 건설 경험, 프로젝트 관리 능력과 경제적인 건설비 등이 경쟁국 대비 강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전은 이를 앞세워 사우디 원전사업 수주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현재 사우디는 ‘비전 2030’ 경제·사회 개혁 계획 하에 90%에 이르는 석유 의존도를 약 50%까지 낮추겠다고 발표하는 등 중장기 신성장동력 확보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사우디는 2030년까지 2.8GW 규모의 원전 2기를 최초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뿌리업계 맞춤 ‘최저임금’ 대책 지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일 부산광역시 소재 뿌리기업(주조업체)인 터보파워텍(주)을 방문,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업계 현안과 정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터보파워텍(주)은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운영 등 연구개발투자를 강화해 조선기자재 생산 업체에서 발전용 가스터빈 부품소재기업으로 사업 전환에 성공한 업체다. 발전터빈 부품을 국산화해 국내 발전회사에 납품하고 있으며 이를 발판으로 제너럴모터스(GE), 미쓰비시, 히타치 등 글로벌 기업 수출에 성공한 업체다.

이날 정형호 터보파워텍(주)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적인 인건비를 상승

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어 현재 노무사·컨설팅업체 등에 자문해 대응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300인 미만기업으로 2020년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면 주 52시간 준수를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백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는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가야할 방향이지만 제도 이행과정에서 기업이 직면하는 어려움은 최소화 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애로가 예상되는 뿌리기업, 유통, 섬유업종에 대해 업종별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최신용기자

‘金징어’ 시대... 태평양서 새 어장 찾는다

최근 어획량 감소에 따른 가격 급등으로 오징어가 ‘금(金)징어’로 불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직접 새로운 오징어 어장 찾기에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오징어 생산량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부터 태평양 해역에서 오징어 어장 자원조사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 연근해와 포클랜드 수역 등 주요 어장에서 오징어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원양산 오징어의 경우 2017년 생산량이 4만6000톤으로 2015년 생산량의 31% 수준으로 감소했다. 연근해산 오징어도 2017년 생산량이 8만7000톤으로 1990년 이후 27년 만에 최저 생산량을 기록했다.

올해에도 원양산 오징어의 90% 이상을 생산하는 남서대서양 포클랜드 수역에서 3만1000톤을 어획하는 수준에 머물러 전년보다 생산량이 27% 감소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생산량 감소로 인해 최근 몇 년간 국내 시장에서는 오징



지난달 18일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항에 오징어 위판이 시작된 모습. /연합뉴스

어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냉동오징어 1kg의 연평균 도매가격은 2016년 4577원eso 올해 8410원으로 거의 두배 가까이 오른 상황이다.

해수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해외어장 자원조사 사업의 대상지로 남동태평양(FAO87해구)으로 선정하고, 조사선 2척을 투입해 아메리카 대왕 오징어(Dosidicus gigas) 어장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세종=최신용기자

5억 불 수출효자 ‘김’, 과잉생산에 발등 찍힐라

김 재고 증가... 평년 비 53.6% 많아
“2019년산 김 과잉 대책 세워야” 지적

지난해 사상 첫 수출 5억 달러를 돌파하며 대표적인 수출 효자품목으로 자리매김한 ‘김’이 최근 무분별한 생산으로 재고가 증가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우리나라 김 산업은 2017년 농수산식품 가운데 참치에 이어 수출 2위를 기록했다. 이 같은 수출 호조에 힘입어 현재 정부는 2024년까지 김 수출 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는 ‘김산업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수출주도형 산업으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KMI에 따르면 최근 호황을 보이던 김산업이 재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올 6월 말 기준 국내 김 재고량은 7420만 속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8.7%, 평년에 비해서는 53.6%나 많은 양이다.

KMI는 이러한 재고 증가를 2018년산 김이 작년산에 비해 2,400만 속이나 늘면서 과잉생산 되었기 때문으로 과잉생산의 원인은 수출확대로 인한 양식면허 증가와 불법 양식시설이 무분별하게 늘었

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생산 과잉과는 반대로 올해 상반기 수출실적은 작년 동기기간에 비해 247만 속이 증가하긴 했지만 생산량 증가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국내 김 소비가 일정 수준에 정체돼있는 상황에서 작년 수준의 재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반기 수출 실적이 작년보다 2000만 속가량이 더 높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높은 김 재고 수준을 지속할 경우 김 산업 전반의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 만큼 현재의 상황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재고 소진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2019년산 김 생산이 또 다시 과잉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한다.

구체적인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불법 양식시설 정비를 통한 안정적인 김 생산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어장정비 노력에도 2018년 기준 김의 불법시설은 전체의 35.5%를 차지했다. 불법시설은 김의 과잉생산을 가중시키며, 양식면허(준법시설)를 기준으로 수립되는 정부의 수급정책 실효



성을 낮추기 때문에 정비돼야 한다는 게 KMI의 지적이다.

다음으로 김 생산자의 자율적인 수급 조절 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김 생산자, 정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해 ‘(가칭)김 수급조절 위원회’를 발족하고 적정시설, 과잉생산방지, 재고소진 등의 수급조절 방안을 스스로 마련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일본과 중국의 김 작황, 생산량 등의 수급상황을 비롯해 태국, 미국, 대만 등 주요수출대상국의 수요변화 등을 체크해 국의 수요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세종=최신용기자 grandtrust@

노동부 ‘신중년 사회공헌 지원사업’ 성과 특특

고용노동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 다양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노동부에 따르면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을 보유한 만 50세 이상 신중년 퇴직자가 지역 비영리단체, 사회적경제기업, 공공·행정기관 등을 통해 사회공헌을 할 수 있도록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올해는 신청자가 1만1000여 명에 육박했다. 특히 올 7월 기준 5669명이 참여해 전년 동월 대비 참여인원이 32.2% 증가했다.

이 같은 호응 속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각 지자체들은 지역 내

신중년 전문인력의 경험을 복지, 교육, 생활서비스 등 지역 현안과 접목하며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노동부는 신 중년들의 지역 사회공헌 참여가 더욱 확산되도록 이달 6일 사회공헌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전국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김경선 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국장은 “퇴직자들이 개인의 경력에 맞는 지역 사회공헌을 통해 성공적인 인생 3모작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최신용기자



좋은 콜레스테롤 올려주고

활성형 모나콜린K!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나쁜 콜레스테롤 내려주는

모나콜린K의 힘

홍국쌀 발효과정에서 분비되는 신비의 붉은 빛 물질 모나콜린K가 혈관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청소하고 혈관 청소를 돕는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콜레스테롤을 유지시킵니다.

기능 및 성분 함량 (1일 1캡슐 기준)

모나콜린K 6mg

마그네슘 91mg (부원료)

마늘동결건조분말 100mg (부원료)



공직감사 칼 빼든 이재명, 경기관광공 직원 8명 고발

(경기도지사)

5년동안 7억원대 '부적절 계약'
공직기강확립 주문 후 첫 조치
분할계약 행태 '일벌백계' 일환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철저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가운데 이에 상응하는 첫 번째 조치가 나왔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2일 오전 10시 브리핑을 열고 "7억여 원대의 인쇄물 발주를 수십 회로 금액을 쪼개 수의계약을 하는 등 부적절한 계약체결을 한 경기관광공사 직원 8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인수 감사관은 이어 "당초 감사결과 관련자와 업체의 유착관계 등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확인할 수 없어 경징계 처리했

지만 법률 자문 결과 금융계좌 추적 등의 조사가 이뤄진다면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면서 "그동안 관행적인 분할 계약행태를 뿌리 뽑기 위한 일벌백계(一罰百戒)의 의미가 있다"

고 강조했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경기관광공사 종합감사 결과 추가(고발)' 공문을 경기관광공사에 발송했다. 경기관광공사는 공문접수와 함께 이

들 8명에 대한 수사를 수사기관에 공식 의뢰할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경기관광공사 홍보·마케팅, 총무, 계약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이들은 2013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같은 내용을 담은 책자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총 계약금액 7억2925만2000 원을 48회에 걸쳐 쪼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맺었다. 현행 제도는 2000만원 이하 계약일 경우 경쟁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도는 관련 사업을 통합발주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도 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고 계약을 맺은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48건 가운데 12건은 같은 인쇄물을 2,000만원 미만으로 나누어 일부 같은 사업자에게 분할 발주한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혐의가 적다고 도는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달 16일 열린 감사관실 업무보고에서 "안에서 적당히 봐주고 우리 식구 봐주고 하다보면 호미로 막을 일이 가래로도 못 막을 상황이 생긴다"면서 "규정을 어기거나 허위·왜곡 보고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내부 감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도 높은 감사를 주문한 바 있다.

감사관실은 7월 31일자로 경기도와 도 직속기관, 사업소, 공공기관에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범죄, 정치적 중립행위 위반 등 4대 중점비위 등 직무관련 범죄 행위 ▲허위·왜곡보고와 보고누락 등 업무태만과 소극행정 ▲근무지 이탈 등 복무기강 해이 ▲민원 고의지연 등 민원 불친절 등 공직자 품위훼손 등 4개 사항에 대해 중점 감찰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metroseoul.co.kr



전남 무안군 하절기 단체 헌혈 실시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달 군 보건소 앞에서 사랑의 헌혈운동을 실시했다.

최근 여름방학과 가철이 겹치는 시기인데다가 폭염으로 인해 헌혈 참여가 높지 않아 혈액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무안군은 작은 실천이 이웃의 생명을 구하고 희망을 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사회단체와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사랑의 헌혈을 실시했다. 사진은 헌혈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전남 무안군

경기 광주 송정지구 '1300세대 주택단지' 조성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인가 고시
주거·복합단지 조성... 9월 첫 삽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일원에 28만㎡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경기도는 광주시가 제출한 광주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3일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광주시가

2019년까지 675억 원을 들여 송정동 318-4번지 일원 28만여㎡에 1302세대(공동·단독) 규모의 주거단지과 상업, 업무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실시계획에 따르면 광주시는 28만여㎡ 가운데 10만㎡를 주거용지로, 1만4000㎡는 상업용지, 2만4000㎡는 업무시설용지, 1만㎡ 공공청사로 개발할 예정이다. 나머지는 공원, 하천, 도로, 학교용지 등이다. 송정지구는 2005년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 지가상승 등의 이유로 장기

간 사업이 지연된 곳이기도 해 이번 승인이 사업 추진의 단초가 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2019년말 준공을 목표로 오는 9월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개발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송정지구는 광주IC와 경기광주역이 인접해 있어 교통이 편리하며, 경안동 등 기존 시가지와 광주시청, 광주시법원 등이 위치한 송정동 행정타운을 연결하는 지역이다.

/경기 광주=김승열 기자

경기도 5급 공무원 승진자 중 35% 여성

여성비율 역대 최고 기록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양성평등 경기를 위해 고위직 여성공무원과 도내 각종 위원회의 여성 비율을 늘리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지난달 31일 발표된 5급 승진 예정자 가운데 여성 비율이 35.4%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5급 승진자는 전체 48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 승진자는 17명이다. 특히 행정직공의 경우, 승진 예정자 15명 가운데 절반을 넘는 8명이 여성이어서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상승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35.4%는 민선 6기 4년 평균 여성 5급 승진비율인 21.7%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로 이 기간 동안 경기도에서는 총 387명이 5급으로 승진했으며 이 가운데 84명이 여성이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5급 승진자 가운데 여성 비율이 높다는 것은 향후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도 여성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번 인사로 여성 간부 공무원 확대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앞서 진행된 실 국장급 인사에서도 차정숙 자치행정국장과 김미성 여성비전센터소장을 각각 3급과 4급 공무원으로 승진 발탁해 고위직 여성공무원 확대를 예고한 바 있다.

경기도는 현재 전체 공무원 3,795명 가운데 여성이 1,267명으로 33.4%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966명 가운데 여성이 146명으로 15.1%에 불과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22년까지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20%까지 높일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경기=김승열 기자

NH 광주전남본부 광주 진월·하남 희망상가 입점자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 본부는 광주 진월, 하남 행복주택 내 LH희망상가 입점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3일 모집 공고를 하고, 일반형은 27일, 공공지원형은 9월3일부터 5일까지 입찰 및 신청접수를 받는다.

LH희망상가는 일자리창출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LH가 청년, 영세소상공인, 실수요자들에게 시세 이하로 최장 10년간 공급하는 임대상가다.

(일반형 임대조건)

지구	총 호	호	임대면적(㎡)			예정가격(천원)
			계	전용	공용	
광주 진월	1	101	39,5960	33.60	5,9960	15,075,360
		102	39,5960	33.60	5,9960	14,656,560
광주 하남	1	101	37,7956	32.25	5,5456	13,902,720

진월 희망상가는 광주 남구 노대동 825번지에 올해 12월 입주 예정인 진월행복주택(460세대) 내 위치하며 일반형 2호, 공공지원형 3호로 임대규모는 전용 33㎡다.

하남 희망상가는 광주 광산구 우산동 1161-3번지에 2019년 1월 입주 예정인 하남행복주택(300세대) 내 위치하며 일반형 1호, 공공지원형 2호로 임대규모는 전용 29~31㎡다. /광주=봉채영 기자

담양군 풀뿌리공동체디딤돌사업 '돈옴단계 워크숍' 개최

담양군은 지난 1일 대전행 행복센터에서 우수공동체 6개 팀 및 사회적 경제에 관심 있는 주민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풀뿌리공동체디딤돌사업 돈옴단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전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기본교육을 통해 돈옴단계 이후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전남 담양=봉채영 기자 bcy2020@

장성군 그림자 가로등으로 이색홍보 '눈길'

장성군이 가로등 불빛을 이용한 이색 홍보에 나섰다.

장성군은 유동인구가 많은 장성역 광장과 버스터미널, 장성군청 정문, 서삼교, 북이면 사거리시장 다섯 곳에 최근 시범적으로 그림자 가로등을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

그림자 가로등은 특수 필름으로 제작한 이미지나 문자를 LED 조명을 내장한 가로등에 부착해 지면이나 벽면에 투사하는 가로등으로 기업체나 지방자치단체가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장성군은 야간에 그림자 조명을 통해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장성군', '우리가 살고 있



는 이곳은 옐로우시티 장성입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옐로우시티 장성 방문을 환영합니다', '당신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응원합니다' '잘했고 잘하고 있고 다 잘 될 거야' 등의 감성적인 문구를 전달하고 있다. /전남 장성=봉채영 기자

광주 서구 정보소외계층 위한 소리로 듣는 '소식지'

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생생한 광주 서구 소식을 소리로도 들을 수 있게 발행하고 있다.

시각장애인과 고령자, 이주 외국인 등 글을 읽기 어려운 정보 소외계층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

소리로 듣는 소식지는 서구청에서 발행하는 신문인 '서구소식'을 대본으로 만든 뒤 녹음해 음성파일로 지원하는 소식지 낭독서비스다. 주민이 소식지를 들을 때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20분 내외로 재생시간을 줄이고 각 기사마다 배경음악과 효과음을 넣었다. /광주=봉채영 기자

www.loannews.co.kr

서민들을 위한 금융신문

한국 소비자금융신문

- 서민과 중소기업에게 올바른 금융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 저축은행, 카드사, 신용 정보업체, 대부 업체, P2P업체, NPL업체 등
- 제2금융에 대해 잘못 전달된 정보를 올바른 금융 정보로 바꾸겠습니다.
- 정확한 정보와 소식으로 안전한 저축과 합리적인 소비대출을 알려드립니다.

구독문의 | 02)721-9861

약효도 녹이는 폭염... “서늘한 그늘에 통풍되도록 보관”

가정상비약 품목별 보관 요령
 실온 보관으로 기재 돼 있어도 폭염엔 의약품 변질 가능성 높아 개봉후 사용기간 엄수·재포장 NO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하면서 의약품이 변질하거나 녹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유통되는 약



대부분은 상온 또는 실온에서 보관하게 돼 있는데, 대한민국약전에선 상온을 15~25도, 실온을 1~30도로 규정한다.

즉, 요즘과 같은 고온에서는 상온이나 실온에 보관했다가는 의약품이 변질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최근에는 야외에 주차한 자동차 내 온도가 70도를 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고온의 자동차 내부에 약을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여름철 의약품 보관 시 주의사항’을 2일 배포·공개했다.

◆아스피린
 아스피린은 소염진통제 또는 심혈관계 질환을 가진 환자가 혈전 생성 억제제를 위해 복용하는 약물이다.

고온에 보관할 경우 분해 및 파손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피부질환 연고 및 크림
 피부에 바르는 의약품은 햇빛이나 온도, 습도에 민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름철 자주 발생하는 무좀 등에 사용하는 라미실크림은 빛에 민감하므로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연고는 별도 주의사항이 없다면 상온에서 보관하고, 사용 후에는 뚜껑을 잘 닫는다.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하는 게 좋다. 만약 약 처방받은 연고류를 별도의 조제용 연고곽에 덜어서 썼다면 한 달 이내에 사용하도록 한다.

◆인슐린 주사제
 매일 투여해야 하는 인슐린 주사제는 적정온도 유지와 짧은 사용 기한으로 인해 보관이 까다로운 대표적인 약물이다. 인슐린 주사제는 고온에서 효능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30℃ 이상에 방치하면 안 된다. 지나치게 저온에 보관해 얼게 해서도 안 된다. 여름 중 비상상황에 대비해 인슐린을 챙겼다면 4~20℃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별도 케이스에 보관하는 게 좋다.

◆협심증 치료제
 협심증 발작에 복용하는 니트로글리세린 설하정(舌下錠·혀 밑에서 녹여 먹는 약)은 보관에 따라 효능이 달라질 수 있다. 니트로글리세린은 빛, 열, 습기에 민감하므로 실온에서 밀봉, 차광 상태로 원래의 갈색병에 보관해야 한다. 환자가 여름철 주머니에 약이 든 플라스틱병을 보관하고 다녔을 때, 5일이 지나자 분해되고 15일이 지나자 거의 효과가 없어졌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천식 치료제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치료에 사용되는 흡입용 기관지 확장제 역시 보관 온도에 민감하다. 고온에서는 폭발 위험이 있으며, 흡입할 때 환자에 전달되는 약물의 양도 줄어들 수 있다. 알베스코흡입제의 경우 가압된 액체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50℃ 이상의 온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루약 시럽
 가루약은 일반 정제 알약보다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 가루약은 특히 습기에

약하므로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가루약의 색이 변했거나 덩어리로 굳어지면 바로 버려야 한다. 또 항생제, 시럽은 약마다 보관 온도가 상이하므로 설명서를 따르는 게 제일 안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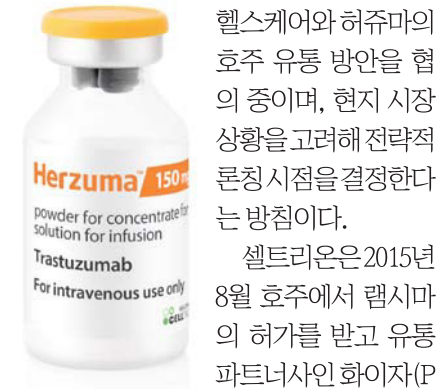
◆냉장보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가정에서 서늘한 곳에 약을 보관하기 위해 냉장고에 약을 넣어두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시럽은 일부를 제외하곤 냉장고에 보관하면 약물의 층이 분리돼 효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항생제 등 포장지에 냉장보관이 적혀 있는 약물을 제외하고는 실온 보관이 원칙이다. 고온의 날씨로 인해 적절한 보관장소가 없어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면 지퍼백에 넣어 음식이나 음식의 일시적인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약사회는 “대부분의 약은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게 가장 좋다”며 “약국에서 포장에 든 약을 별도로 줬다면 이를 개봉해 다른 약병에 옮겨 담거나 다른 약과 재포장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민웅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셀트리온 ‘허쥬마’, 호주 식약처 판매 허가

바이오시밀러 중 최초 셀트리온은 ‘허쥬마(사진)’가 호주 식약처(TGA)로부터 판매 허가 승인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허쥬마는 유방암 및 위암 치료용 항체 바이오시밀러(성분명 트라스트주맙)다. 트라스트주맙(Trastuzumab) 바이오시밀러 중 최초로 호주에서 판매 허가를 받았다.



허쥬마는 조기유방암 및 국소진행형 유방암, 전이성 유방암, 진행성 위암 치료에 쓰이며, 오리지널의약품은 제넨텍(Genentech)이 개발하고 로슈(Roche)가 판매하는 ‘허셉틴’이다. 허쥬마의 오리지널의약품은 호주에서 연간 약 1341억원 규모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계열사인 셀트리온

소진공, 신한銀과 소상공인 경영안정 협력 ‘맞손’

은행컨설팅 연계 등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신한은행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소진공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신한은행과 ‘소상공인 경영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양측은 협력체계를 구축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은행 컨설팅 서비스를 연계해 정책자금 지원 효과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주요 협약 내용에는 ▲경영애로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홍보협력 ▲소상공인 성공지원 컨설팅 센터(가칭) 운영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업체에 대한 매출증대·수익개선 컨설팅 지원 ▲소상공인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자료 공



(왼쪽부터) 신한은행 위성호 행장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흥빈 이사장이 지난 1일 소상공인 경영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사인을 하고 있다. /소진공

유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양 기관이 보유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고용특별자금 등 소상공인정책자금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소진공은 오는 6일부터 ‘정책자금 서류 온라인 제출 서비스’도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소상공인들이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오프

라인 서류제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표준재무제표증명▲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주민등록초본·등본 등의 필수서류 14종과 법인 세신고내역,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등 추가 요청서류 10종이다. /김승호 기자 bada@

모기퇴치제 ‘뚝’, 쿨링제품 매출 ‘쑥’

폭염의 경제학
 위메프 “모기장 등 용품 14% 줄어”

40도 가까이 치솟는 폭염에 ‘여름철 불청객’인 모기가 예년보다 줄면서 모기퇴치용품 매출도 덩달아 감소하고 있다. 반면 체온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쿨링 제품 매출은 경증 뛰었다.

위메프는 지난 7월 한달동안 모기장, 모기기피제 등 모기퇴치용품 매출을 조사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14% 가량 줄었다고 3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모기향 40%, 방충망 35%, 살충제 35%, 모기퇴치스프레이는 지난해보다 6% 각각 감소했다. 실내·외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원터치 모기장은 40%, 전기모기채도 37% 역신장했다. 반면 모기 물린 자리에 붙이는 모기패치는 238%, 손목이나 발목에 착용하는 모기퇴치밴드는 170% 급성장했다. 위메프 천경원 리빙실장은 “오랜 폭염

으로 모기수가 줄어들어 관련 제품의 판매가 예년에 비해 주춤한 편”이라며 “하지만 어린이용 제품이 많은 모기패치, 모기퇴치팔찌 등은 날씨의 영향과 상관없이 작년보다 2배 이상 판매가 급증했다”고 말했다.

한편 계속되는 폭염으로 체온을 낮추거나 햇빛을 가리는데 도움이 되는 제품을 찾는 소비자는 늘고 있다. 옷에 뿌리는 즉시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쿨스프레이는 117%, 자동차·유모차 쿨시트는 50%, 쿨방석은 31%, 피부진정 효과가 있는 알로에수딩젤은 전년 동기 대비 20% 매출이 증가했다. 강한 자외선을 막아줄 수 있는 선크림과 양산도 각각 50%, 40% 판매가 늘었다.

위메프 관계자는 “쭙부인 모양의 쿨부인, 양손이 자유로운 샷갓모자 등 폭염을 재미있게 극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 쿨링제품이 인기”라며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쿨링제품의 인기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올리브영 여성창업자 위해 女멘토 총 집합 | ‘위민 리더스 데이’ 성황리 개최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된 ‘2018 올리브영 Women Leaders Day’에서 여성 예비 창업자들과 함께 토크콘서트를 마친 여성 리더 3인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최희진 에스맨 대표(왼쪽부터 차례대로), 수 이즈미엘 네즈 대표, 최나라 올리브영 상품기획자. /CJ올리브네트웍스

올리브영이 여성들의 창업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각 분야 여성 리더들과 함께 멘토로 나섰다. 올리브영은 지난 1일 오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2018 올리브영 위민 리더스 데이(Women Leaders Day)’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2018 올리브영 위민 리더스 데이’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국내외 여성 리더들과 함께 대학생 및 여성 예비 창업자들에게 폭넓은 경험을 전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 행사는 올리브영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 주최·주관하고 호주의 유명 제모 브랜드이자 올리브영이 직접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네즈(Nad’s)’가 후원했다.

이 날 행사는 사전 신청한 여성 예비 창

업자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한 여성 리더 3인과 함께 하는 토크 콘서트와 여성 스타트업 후원식 두 가지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토크 콘서트 연사로는 여성 글로벌 리더로 ‘수 이즈미엘(Sue Ismiel)’ 호주 글로벌 제모 브랜드 ‘네즈’ 대표가 나섰다.

트렌드 리더로는 해외 유명 브랜드를 국내 시장에 선보이는 최나라 올리브영 상품기획자가 상품 소심 노하우를, 라이징 리더로는 최희진 에스맨 대표가 ‘모두가 행복한 공정부역 비즈니스’ 성장스토리를 참석자들과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내 여성 스타트업을 응원하는 ‘네즈’의 후원금 전달식도 함께 진행됐다. /*김민서 기자 min0812@

한화갤러리아, 해외 명품 브랜드 등 콘텐츠 강화

‘포레르빠쥬’ 국내 1호점 갤러리아명품관에 입점

전세계 8번째 매장 내달 중순 오픈
국내 독점 판매권으로 프리미엄 ↑

최근 백화점마다 단독 브랜드 발굴 역량을 키우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온라인 시장이 급속하게 커지면서 고객들을 오프라인으로 끌어드릴 차별화된 콘텐츠와 브랜드를 보유하기 위해서다. 특히 한화갤러리아는 갤러리아만의 특화된 해외 유명 브랜드를 유치하며 프리미엄 콘텐츠 강화에 나섰다.

한화갤러리아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 ‘포레르빠쥬’ 국내 독점 판매권을 획득, 올 9월 중순 압구정동 갤러리아명품관에 국내 ‘포레르빠쥬’ 1호점 오픈한다고 2일 밝혔다. 그리고 가을·겨울 MD 개편을 통해 유럽 최신 패션 트렌드를 리딩하는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를 잇따라 선보이겠다고 전했다.

◆프랑스 명품 ‘포레르빠쥬’ 국내 판권 획득
갤러리아명품관에 오는 9월 오픈할 ‘포레르빠쥬’는 핸드백과 스몰레더 상품 등을 중심으로 한 프랑스 명품 브랜드로 300년의 유서 깊은 역사를 자랑한다. 브랜드의 무리한 확장보다 희소 가치를 중시하여 최적의 장소에만 매장을 오픈한다는 방침을 갖고, 현재 프랑스를 비롯한 전세계에 7개 매장만을 운영하고 있다. 오는 9월 중순 갤러리아명품관에 오픈하게 되면 한화갤러리아는 전세계에서 ‘포



포레르빠쥬 대만 매장.

/한화갤러리아

레르빠쥬’ 8번째 매장이 된다.

갤러리아는 ‘포레르빠쥬’를 유치하기 위해 3년 동안 프랑스를 수십 차례 오가며 공을 들였고, 우수한 국내 유명 패션회사들과의 경합 끝에 국내 독점 판매권을 획득할 수 있었다.

‘포레르빠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오귀스탕 드 뷔페방’은 “역동적인 세계 도시 중 한 곳인 서울에서 포레르빠쥬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됐다.”라고 말하며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여러 후보 군을 고심한 끝에 한국 최초이자 최고의 명품 백화점 채널을 갖고 있는 한화갤러리아와 파트너를 맺게 됐다.”라고 밝혔다.

◆35개 단독 브랜드 보유... 26개 신규 브랜드 선배

한화갤러리아는 우리나라 대표 명품 백화점으로서 샤넬·에르메스·루이비통 등 해외 명품 브랜드들의 국내 1호점 오픈을 비롯해 갤러리아만의 단독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선보이면서 차별화된 상품 콘텐츠를 선보여왔다.

현재 갤러리아명품관만이 보유하고 있는 단독 브랜드는 35개이며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이탈리아 최고의 명품 남성 브랜드 ‘스테파노리치’와 독일 프리미엄 스킨케어 전문 브랜드 ‘노에사’ 등이다.

갤러리아는 이번 가을·겨울 시즌 MD 개편을 앞두고 포레르빠쥬 외에 갤러리아명품관 직영 편집숍에서 유럽 최신 트렌드를 리딩하는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 포레르빠쥬 로고, ▲ 포레르빠쥬 칼리버 백.

26개를 선보인다. 대표 브랜드로는 프랑스 브랜드인 ‘메종라비 케루즈(프랑스 여성 브랜드)’, 이태리 브랜드인 ‘마르코디빈세조(이태리 여성 브랜드)’, 덴마크 브랜드인 ‘엘리오 에밀(남성 스트리트웨어 브랜드)’ 등이다.

◆상반기 전년 대비 신장률 두 자릿수 증가세
갤러리아명품관은 올해 2018년도 상반기 매출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신장률을 기록하며 괄목할만한 매출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하반기 ‘포레르빠쥬’를 비롯하여 명품관 편집숍의 해외 직수입 브랜드 콘텐츠 강화로 올해 매출 신장세를 굳건하게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명품관의 상반기 매출 신장률을 카테

고리 별로 살펴보면, 명품잡화(+16%), 명품남성(+36%), 명품여성(+7%), 가전(+18%) 등이며 명품남성의 매출 신장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갤러리아는 여성 중심이었던 루이비통, 구찌 등 명품브랜드가 남성 매장을 별도로 오픈하면서 명품남성을 중심으로 한 명품 매출이 신장세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했다.

◆갤러리아, 해외 관광객 쇼핑명소로 자리매김했다.
갤러리아백화점은 국내 명품시장에 있어서 항상 ‘국내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 백화점으로 국내 소비자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들에게도 각광받는 쇼핑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갤러리아는 90년대 우리나라에 명품 백화점의 개념을 국내 처음으로 도입했다. 샤넬·에르메스·루이비통·구찌·고야드·파텍필립 등 최고의 명품 브랜드가 국내 진출 시 1호점으로 갤러리아명품관을 선택했다. 이번 ‘포레르빠쥬’ 오픈 역시 갤러리아가 해외 명품 브랜드가 한국 시장에 진출할 때 가장 먼저 입점해야 하는 백화점임을 증명했다.

한화갤러리아 패션콘텐츠부문장인 방원배 상무는 “이번 포레르빠쥬 판권 획득으로 우리나라 명품 1번지로서의 갤러리아 위상이 더욱 공고해졌다”라고 말하며 “향후 ‘Only갤러리아’ 만의 해외 프리미엄 상품 콘텐츠를 지속 개발하여 선보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성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롯데마트 “열대야 피하자”... 한 달간 ‘야시장’ 프로모션



지난 주말, 롯데마트 서울역점이 야간 시간대에 방문한 고객들로 붐비는 모습. /롯데소싱

롯데마트가 이달 31일까지 한 달간, 야간 시간대인 21시부터 23시까지 ‘야시장’을 테마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올 여름, 이른 장마에 이어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폭염을 피해 마트를 방문하는 고객이 늘고 있다. 특히, 야간 시간대에 열대야를 피해 마트를 방문하는 고객이 증가하고 있다. 롯데마트의 전 영업 시간 중에 야간 시간대인 21시부터 23시까지의 매출 비중은 무더운 날씨가 시작된 7월에 14.7%까지 증가했다. 올해 1~6월, 같은 시간대 매출 비중이 10.5%인 것과 비교하면 4% 포인트 이상 증가한 수치다.

롯데마트는 야간에 마트를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즐겁고 재밌는 쇼핑 환

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롯데마트가 야간 시간대에 대대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롯데마트는 8월 한 달간, 계양점, 양주점 등 총 10개 점포에서 순차적으로,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해 야간 플라마켓을 연다. 플라마켓에서는 의류, 잡화 등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고, 야식도 판매한다.

또한, 문화센터와 연계한 여러가지 문화 콘텐츠도 선보인다. 롯데마트는 야간 시간대에 강사와 수강생이 참여하는 연주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매장 내 주요 동선에는 문화센터 회원들의 예술 작품도 전시한다.

행사 기간 동안 전 점포에서 21시부

터 23시까지 ‘야간 장터’를 열고 신선식품과 생필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야간 장터’ 컨셉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할인 판매하는 축산, 수산 등 신선식품의 품목과 할인율을 매일 점포 별로 선정한다. 또한, ‘야간 장터’ 행사에서는 다양한 생필품도 할인 판매한다.

장대식 롯데마트 고객채널본부장은 “최근 야간 시간대에 무더위를 피해 마트를 방문하는 고객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8월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열대야를 피해 야간 시간대에 방문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즐겁고 재밌는 쇼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맞춤형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신원성 기자

유통 단신



이랜드 피자뷔페 ‘피자몰 강남역점’

이랜드는 무한리필 피자뷔페 ‘피자몰’ 강남역점을 오픈했다고 2일 밝혔다.

새롭게 오픈한 매장은 강남역 11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거리인 스와오 건물 6층에 자리했다.

피자몰 강남역점은 피자존, 샐러드존, 핫푸드존, 디저트존뿐 아니라 마약잡스 테이크, 치자라이스 등 유명 길거리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푸드트럭존까지 더해져 메뉴가 더욱 풍성해졌다.

피자몰은 치즈를 메인으로 한 다양한 토핑의 프리미엄 피자 6종을 새로 출시했으며, 2일부터 전국 13개 피자몰 뷔페 매장에서 즐길 수 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롯데주류 ‘클라우드’ 수출 확대... 몽골 간다 CU, 업계 첫 ‘모바일 고객센터’ 오픈

롯데주류가 아시아 전역으로 맥주 수출시장을 확대한다.

롯데주류는 맥주 ‘클라우드’를 캄보디아, 베트남에 이어 8월부터 몽골에 수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수출되는 ‘클라우드’는 캔과 병을 합쳐 총 2만8000상자 규모다. 지역 대리상을 거쳐 주요 편의점, 마트 등 가정채널은 물론 현지인들이 주로 찾는 주점, 음식점에서도 판매될 예정이다.

몽골은 드라마, 가요 등 문화 한류 덕분에 한국 브랜드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시장인 만큼, 롯데주류는 기존 한국 맥주들과는 달리 깊고 풍부한 맛으로 차별화된

‘클라우드’를 통해 현지 시장을 빠르게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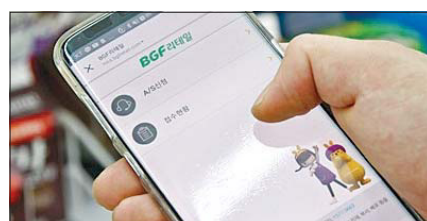
또한 현지 대리상과 협력해 몽골어를 사용한 ‘클라우드’ 영상 광고를 활용하고 전용잔을 비롯한 다양한 판촉물을 통해 현지에서 ‘클라우드’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기존에도 몽골에 진출한 국산 맥주들이 있지만 프리미엄급 맥주는 ‘클라우드’가 처음”이라며 “기존의 한국 맥주들과는 차별화된 프리미엄 맥주 ‘클라우드’를 통해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한국 맥주의 우수성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편의점 CU 고객센터가 휴대폰 속으로 들어온다. CU는 업계 최초로 전국 1만 3000여 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CU 모바일 고객센터’를 오픈했다고 2일 밝혔다.

가맹점주의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프랜차이즈의 특성상 기존 유선 고객센터와 함께 모바일 고객센터를 추가로 구현해 가맹점주들이 보다 편리하게 불편사항을 접수하고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냉장고, POS 및 점포시설의 A/S가 필요한 경우, 고객센터 상담을 거칠 필요 없이 모바일 고객센터에서 점포명과 함께 필요한 정보를 간략히 기입하면 유선 고



편의점 CU가 2일부터 전국 1만3000여 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CU 모바일 고객센터’를 오픈한다. /BGF리테일

객센터, 해당 기기 전담 수리센터로 동시에 접수된다.

접수가 완료된 내역은 접수현황 메뉴에서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도 있다. /김민서 기자

롯데제과 콘 아이스크림 ‘스키피콘’

롯데제과가 ‘스키피콘’의 인기에 힘입어 콘 아이스크림 타입인 ‘스키피콘’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롯데제과 빙과 신제품 ‘스키피콘’, ‘인투더당고바’는 출시 보름 만에 150만개의 판매고를 올린 제품이다. 그 중 ‘스키피콘’은 글로벌 브랜드 ‘스키피’의 땅콩버터를 사용하여 본연의 맛을 잘 살렸다. /박인용 기자



아모레퍼시픽 “유방암 초기환자 쾌유 응원합니다”



아모레퍼시픽이 후원하고 한국유방건강재단이 전개하는 ‘핑크리본 온라인 캠페인’ 포스터. /아모레퍼시픽

‘핑크리본 온라인 캠페인’ 시작 일상 생활에 필요한 물품 선물

㈜아모레퍼시픽은 한국유방건강재단과 함께 유방암 초기 환자의 쾌유를 응원하고 라이프 스타일을 케어하고자 핑크리본 캠페인의 일환인 ‘핑크리본 온라인 캠페인’을 새롭게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유방건강재단이 올해부터 전개하는 ‘핑크리본 온라인 캠페인’은 유방암 초기 환자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선물해 유방암 환자들의 빠른 쾌유를 응원하는 캠페인이다.

지난 2000년 국내 최초 유방 건강 비영리

공의 재단인 한국유방건강재단을 설립한 아모레퍼시픽은 새롭게 전개되는 ‘핑크리본 온라인 캠페인’을 후원해 유방 건강의식 향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지는 동시에, 유방암 초기 환자를 위한 저자극 화장품 및 생활용품들을 지원한다.

‘핑크리본 온라인 캠페인’은 전국 유방암 초기 환자와 가족, 지인이 신청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20일까지이다. 한국유방건강재단 홈페이지에 사연을 올린 신청자 중 매월 40명을 선정해 비니와 러닝화, 그리고 건강 회복을 응원하는 화장품과 생활 용품을 제공한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사)홀트아동복지회 본부에서 장호진 현대백화점그룹 기획조정본부 사장(왼쪽 두 번째)이 말리 홀트 홀트아동복지회 이사장에게 보호시설 퇴소 아동청소년 자립 지원금 3억원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뮤지컬 배우 최정원, 장호진 사장, 말리 홀트 홀트아동복지회 이사장, 김대열 홀트아동복지회 회장. /현대백화점그룹

현대백화점

보호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

현대백화점그룹이 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들의 자립 지원에 나선다.

현대백화점그룹은 2일 서울 마포구 (사)홀트아동복지회 본부에서 (사)홀트아동복지회와 ‘파랑새, 꿈을 향한 날갯짓(파랑새, 꿈날)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원금 3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장호진 현대백화점그룹 기획조정본부 사장, 말리 홀트 (사)홀트아동복지회 이사장, 김대열 (사)홀트아동복지회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지원 사업 명에 멘토인 뮤지컬배우 최정원씨도 함께 했다.

현대백화점그룹과 홀트아동복지회는 이번 협약 체결로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시설에서 나와야만 하는 만 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양측은 총 60명의 청소년에게 퇴소 전후로 각각 1년씩 총 2년에 걸쳐 주거 및 자립 지원금, 대학 등록금, 그리고 취업연계 교육비 등 개인당 740만원(2년)을 지원하게 되며, 전문가와 연계한 심리상담·자립지원 훈련 워크숍·자산관리 교육 등 올바른 정서 함양도 함께 도울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장호진 사장은 “연간 1000여 명의 보호시설 퇴소 청소년들이 주거비·생활비 등 생활고로 인해 꿈을 포기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보호시설 퇴소 후 사회를 향한 청소년들의 발걸음이 꿈을 향한 힘찬 날갯짓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834@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차량 인식 서비스 도입

스타벅스가 전국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마이 DT 패스(My DT Pass)’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마이 DT 패스는 지난 6월 국내 커피업계 최초이자, 글로벌 스타벅스 최초로 선보인 차량 번호 인식을 통한 자동 결제 서비스다. 고객의 차량정보를 스타벅스 선불식 충전카드와 연동시켜,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이용 시 별도의 결제수단을 제시하지 않아도, 자동 결제를 통해 주문한 메뉴를 받아 바로 출차가 가능하다.

현재 마이 DT 패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평균 15초 내외의 주문 시간 단축이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마이 DT 패스 서비스에 등록된 고객이 사이렌오더를 통해

사전 주문을 진행한 경우, 주문 존에서의 소요 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진입해서 출차까지 최소 23초만에도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와 같이 결제 대기 시간 단축이라는 이용 편의성 확대라는 장점을 바탕으로, 지난 6월 5일 서비스 최초 출시 이후 약 50일이 지난 현재 등록된 고객 차량은 벌써 13만대를 돌파하기도 했다.

스타벅스는 향후 운영 노하우 축적 및 시스템 안정화와 고도화, 고객의 서비스 사용 용기가 이뤄진다면 현재 평균 2분 30초 정도의 주문 및 출차까지의 소요 시간을 1분 30초 정도까지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



스타벅스커피가 전국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마이 DT 패스(My DT Pass)’ 서비스를 도입한다. /스타벅스커피

다. 최대 1분 정도의 드라이브스루 존에서의 평균 대기시간이 단축되는 셈이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오늘의 운세 8월 3일 (음 6월 22일) http://www.saju4000.com

- 쥐** 48년생 지근 걸어야 내일 뽕이 않는다. 60년생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시간 낭비이니 과감히 포기. 72년생 태양은 항상 그 자리에 떠 있음은 명심. 84년생 공들인 탑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법이다.
- 소** 49년생 가지 못한 길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61년생 자손에게 기쁜 일이 찾아오니 마음이 즐겁다. 73년생 주머니 속 송곳처럼 창의력이 빛나는 날. 85년생 어느 길로 가도 목적지에 도착할 만큼 운이 좋은 날.
- 호랑이** 50년생 성공이 지척인데도 하나 마음만 바쁘다. 62년생 남의 것을 욕심내면 내 것이 두 배로 나간다. 74년생 새로운 기회와 인맥이 생기기 한 단계 상승할 수 있다. 86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중심을 잘 잡자.
- 토끼** 51년생 마음먹은 대로 직진. 63년생 지치고 피곤한 날이나 배우자의 도움으로 충진이 된다. 75년생 한밤중에 비단옷 입고 활보하는 격. 87년생 격한 말은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그대로 내게로 온다.
- 원숭이** 52년생 무더위가 가면 그늘 덕은 잇는 법이니 마음을 비워라. 64년생 후배가 치고 올라오니 서글프다. 76년생 사방으로 운이 열렸으니 미뤄뒀던 일을 하자. 88년생 조금씩 화를 부르니 느긋하게 행동.
- 뱀** 53년생 낙수물에 바위가 뚫리는 법이니 꾸준한 노력이 필요. 65년생 다정도 병이니 자녀에게 지나친 잔소리는 금물. 77년생 충언도 사람을 바라며 해야 한다. 89년생 보기 싫은 사람도 아쉬울 때가 있는 법.

- 말** 54년생 고집을 세우면 부모도 외면한다. 66년생 까마귀는 눈에 백로하는 가지 않는 법이다. 78년생 망설임은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주니 결단이 필요. 90년생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선물이 들어온다.
- 양** 55년생 깊은 물에 고기가 모이는 법이니 아랑을 베풀자. 67년생 아는 길도 물어서 가야 실수가 없다. 79년생 꿈을 얻으려면 먼저 발똥을 준비. 91년생 변화의 운이 있으니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보는 것도 좋다.
- 원숭이** 56년생 입이 경솔하면 주변을 시끄럽게 한다. 68년생 위장계통이 안 좋을 수 있으니 먹는 것에 주의. 80년생 상부상조하는 것이 전체의 이익을 가져오니 협동. 92년생 병도 약도 내 탓임을 기억하라.
- 닭** 57년생 가족 간의 말다툼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69년생 과대포장은 상대방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81년생 길 떠나려는데 신발 끈이 풀려 지체. 93년생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 거라가 순조롭게 진행된다.
- 개** 58년생 아직은 꿈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70년생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 양쪽 모두 잃을 수 있음. 82년생 초대받은 손님이 환대를 받으니 기쁨이 넘치는 날. 94년생 매화가 피었으니 곧 봄이 올 것이다.
- 돼지** 59년생 후배와 다툼이 생기기 체면이 구겨질다. 71년생 건강이 우선이니 규칙적인 운동을 하라. 83년생 오르막길을 가다 보면 내리막도 있는 법. 95년생 굴치 아픈 일이 지인의 도움으로 해결.

김상회의四季 재테크도 궁합이 중요

“원장님 저는 왜 남들처럼 돈이 안모일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마흔 중반에 아내가 교사인 직장인이다. 품성 좋은 사주를 지니고 있는 그의 고민은 돈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돈에 한이 맺힌 것처럼 근근하게 아니지만 돈타령을 한다. 그의 사주에 재물이 없는 건 아니다. 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주이다. 그럼에도 그가 돈타령을 하는 건 남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것이다. 교사인 아내와 맞벌이를 하는 그는 재테크에 전혀 소질이 없다. 월급을 타면 알뜰하게 저축을 한다. 성실하게 일하고 꼬박꼬박 저축을 하는 것, 그게 그의 재테크 방법이다. 사주에 정재가 있으면 정해진 날짜에 나오는 월급생활을 하는 게 적격이다. 장사라도 해보겠다고 나서면 성공하지 못한다. 정재 사주는 보수적인 성향이다. 생활에 큰 변화가 오는 걸 싫어하고 어떤 일이든 쉽사리 도전하지 않는다. 정재 사주는 돈을 벌 때도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 돈을 모으는 걸 하지 못한다. 그러니 그가 저축을 하는 건 사주를 봤을 때 최선의 재테크 방법이다. 원하는 재물을 모을 때도 사주에 맞는 저마다의 방법이 있다. 사주와 궁합이 좋은 재테크 방법을 택해야 돈이 잘 모인다. 오행에서 금(金)은 재물을 상징한다. 사주의 오행 중 금이 태과하다면 부동산 투자를 고려할 만하다. 부동산 중에서도 재건축 중심으로 투자를 한다면 짭짤한 맛을 볼 수 있다. 사주에 비겁과 재성이 함께 있는 사람은 뜻하지 않은 돈을 만질 수 있다. 말하자면 횡재수가 있는 것이니 큰 노력 없이 돈을 벌게 된다. 그런데 돈을 벌겠다고 투자에 본격적으로 달려들면 오히려 돈이 빠져나갈 수가 있다. 비겁과 재성이 있는 사주의 횡재는 결코 좋은 횡재수가 아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돈이 생기는 운세인데 이는 노력으로 되는 일이다. 그러니 사주만 믿고 주식 같은 곳에 투자를 한다면 큰돈을 잃게 된다. 돈을 벌려면 이렇게 사주와 잘 어울리는 방법을 알아야 성공한다. 마음 약한 사주로 주식 투자를 한다면 잘못된 선택이다. 수익을 내기엔 커녕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돈을 벌기는 힘들다. 혼자 있기 좋아하고 예술가를 직업으로 삼아야 하는 사주인데 장사를 한다면 말려야 한다. 상식적으로 보아도 장사에 어울리지 않으니 돈 벌기는 엄감생심이다. 이렇게 사주를 무시하고 돈을 벌려한다면 돈이 벌리지 않는 건 물론이고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 남들이 돈 번다고 나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한 발상이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1		5		8			
2	8		6		3		4	1
		3	1		8	2		
	6	1			8	2		
9		3	4			6	7	
		6	2		9	4		
3	4		7		6		1	2
	9			1				6

								1
4	9						3	
8	1		6					9
				3	5			7
7	6			1				8
1			7	9				
6	7				8			2
								5
3								4

스도쿠 정답

8	9	1	5	1	7	2	6	3
2	1	6	9	8	4	5	7	1
8	5	7	6	3	2	9	1	4
6	4	9	1	2	8	7	5	3
7	8	1	4	9	5	8	2	6
5	2	8	7	6	1	9	4	3
1	6	2	8	7	1	5	9	4
1	7	5	2	4	9	6	8	3
9	8	2	5	6	4	1	7	3
6	1	8	2	4	5	6	7	9
6	7	1	9	5	2	8	3	4
5	2	8	7	6	1	4	9	3
7	5	2	9	6	4	8	1	3
8	6	4	1	2	5	9	7	3
4	9	1	5	8	7	6	2	3
2	6	7	4	5	9	1	8	3
8	1	5	2	1	9	6	7	4
1	9	6	8	7	4	5	2	3

문제 제공= 보너스

다이어트, 제대로 알고 하자



홍종욱 **원장의**
성명이야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대부분의 여성들이 다이어트에 한창이다. 다이어트 방법도 각각씩이다. 하루 한 끼만 먹는 '1일 1식 다이어트'부터 한 가지 음식만 섭취하는 '원푸드 다이어트',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고지방 위주로 섭취하는 '저탄수 고지방 다이어트', 체지방 감소에 효과적인 '가르시니아 다이어트', 일정 기간 동안 무조건 굶는 '단식 다이어트'에 이르기까지 그 방법이나 효능이 매우 다양하다.

과연 이러한 방법들은 살을 빼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단기 다이어트는 적합한 방법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게 사실이다.

예를 들어 원푸드 다이어트나 1일 1식 다이어트의 경우 장기적으로 지속할 경우 영양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체력 및 면역력 저하로 각종 부작용을 유발할 위험이 높다. 이른바 '기름진 다이어트'라 불리는 저탄수 고지방 다이어트는 탄수화물 섭취량을 제한해 확실한 체중

감량 효과는 있지만, 2주 이상 지속할 경우 오한, 두통, 변비, 구취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또 최근 다이어터들 사이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가르시니아 다이어트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열매의 껍질에서 추출한 HCA(히드록시시트릭산, hydroxycitric acid)라는 성분을 활용하는 것이다. HCA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데 필요한 효소의 작용을 막아 지방 축적을 줄여주는 등 체지방 감소에는 확실한 효과가 있지만, 체질을 고려하지 않거나 오남용 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실제 미국에서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를 함유한 제품 섭취 후 심각한 간손상이 생긴 사례가 있는데,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하이드로컷(hydrocut)'이란 이름의 해당 제품을 판매금지 시켰다. 또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는 혈액 중의 세로토닌 농도를 높일 수 있어 평소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구매 전 의사 및 약사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지방분해 주사나 지방흡입술은 안전할까? 먼저 다이어트 주사의 원조격이라 할 수 있는 'PPC(포스파티딜콜린: phosphatidylcholine)' 주사의 경우 대부분의 병·의원에서 부작용 위험 없이 지방만 제거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지

만, 사실은 이와 다르다.

PPC 주사는 원래 '비만치료'로 허가받은 약제가 아닌 1959년 독일에서 간경변으로 혼수상태에 빠진 환자를 위해 간성 혼수 보조제로 처음 허가받은 뒤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부 국가에서 사용된 전문 의약품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도 PPC 주사에 대해 영구히, 피부변형, 수술부위 응어리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었다며 소비자와 의료단체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바 있다.

지방흡입술도 100%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 지방을 끌고루 흡입하지 않을 경우 비대칭 현상이 일어나거나 시술 부위가 딱딱해지는 석회화 현상이 일어나기 쉽고, 지방을 흡입하는 과정에서 소장에 천공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 또 지방을 한번에 5,000cc 이상 흡입할 경우 전해질 불균형이나 출혈, 지방전색증 등을 유발할 수 있으니 운동과 식이요법을 통해 체중을 감량한 후 보조적인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과유불급(過猶不及)' 말처럼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선 의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개인의 체질에 맞는 맞춤 다이어트를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세민성형외과 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중재 조정위원)



류영진 식약처장, 식중독 예방 요양병원 현장 방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류영진 식약처장(가운데)이 폭염 장기화에 따라 집단급식소로 인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을 방문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요양병원 내 급식소를 대상으로 식재료 보관실, 조리실 등 급식소의 위생관리 과정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했다. /식약처



대우건설, 직원자녀 대상 '현장 견학체험' 제공

대우건설은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여름방학을 맞은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2018 꿈나무 초대행사'를 진행했다. 2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이날 임직원 자녀 100명은 광화문 본사에 방문해 부모님 회사와 직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세운6-3오피스현장을 견학했다. /대우건설



청소년의 메토 KB! 진로체험캠프

KB국민은행, 청소년 위한 '진로체험캠프' 진행

KB국민은행은 3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KB국민은행 천안연수원에서 130여명의 고등학생이 참여하는 '진로체험캠프'를 진행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진로체험캠프는 진로적성검사, 직업체험 등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사전에 탐색해 볼 수 있는 숙박형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3개 분야(4차 산업, 건축, 뮤지컬)에 관심 있는 고등학교 동아리 청소년들이 참여해 각 분야의 전문 멘토와 함께 자신의 미래 직업을 체험했다. /KB국민은행



NS홈쇼핑, 임직원에 수박 100통 제공

111년 관측사상 최악의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NS홈쇼핑이 임직원에게 수박을 전달했다. NS홈쇼핑은 1일 판교사옥에서 폭염에 지친 직원들을 위해 수박을 함께 먹는 이벤트를 가졌다고 2일 밝혔다. 회사는 각 본부별 직원 5명당 10kg짜리 수박 1통씩, 총 100통의 수박을 제공했고, 임직원들은 함께 수박을 나눠먹으며 더위를 식혔다. /NS홈쇼핑



넷마블문화재단, 임직원 가족 견학행사

넷마블문화재단은 지난 1일 넷마블 본사에서 임직원 가족 55명을 대상으로 '넷마블견학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넷마블 임직원 가족들은 맞춤형 게임 산업 강의 및 직군 소개 등을 통해 부모가 종사하고 있는 게임 산업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보냈다. /넷마블문화재단

누구를 위한 영업 규제?



기지수첩
신원선
(유통&라이프부)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영업규제가 골목 시장 상권 살리기에 얼마나 보탬이 될까. 현재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라 매월 2회 휴무를 실시하고 있다. 지역별로 다르지만, 마트의 경우 보통 둘째, 넷째 일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하고 있다.

기자의 경우 집에서 가장 가까운 마트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송림점과 홈플러스 간석점이다. 두 대형마트 모두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하고 있다. 그래서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는 시

장으로 장보러 가느냐? 대답은 '아니'다. 그 전날 미리 마트에 가서 장보기 일쑤다. 그리고 그날은 특히 사람이 많이 몰린다.

대다수의 소비자가 급하게 필요한 생필품을 제외하고는 대형마트에서 장을 본다. 품목 자체가 워낙 다양한데다가 브랜드와 성능을 따져 물건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다.

시장이나 슈퍼마켓은 품목 자체도 많지 않고, 종류도 다양하지 않은데다가 가격은 대형마트보다 비싼 편이다.

심지어 집에서 편하게 모바일과 PC를 이용해 '장바구니'에 물건만 담으면 집 앞까지 배송되는 시대다. 40도를 웃도는 요즘같은 무더위에 어느 누가 시장에서 땀 흘리며 장을 보려 하겠는가.

의무휴업이 시행된 후 전통시장에서의

소비가 늘어난 것도 아니다. 실제로 한카드사의 빅데이터에 따르면 전통시장 소비액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복합쇼핑몰에도 의무휴업이 적용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쇼핑몰 내 일부 입점 점포가 대기업과는 무관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라는 것이다.

일례로 롯데에서 운영하는 쇼핑몰과 백화점의 입점 파트너사 중 70% 이상이 중소기업이고, 아울렛의 경우는 80%에 해당하는 매장이 소상공인이 운영하고 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살리겠다고 시행한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오히려 쇼핑몰 내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셈이다. 규제가 효과 없음에도 지속되어야 하는 지 묻고 싶다. /tree6834@metroseoul.co.kr

인사

- ◆ **국민연금** ◇ 기금운용본부 △ 해외증권실장 임형주 △ 해외대체실장 최형돈
- ◆ **한국고전번역원** △ 이사 박소동 허영란 △ 감사 전창하
- ◆ **엠코르셋** △ 승진 △ 사장 김계현 △ 상품기획총괄 전우이사 조혜선 △ 경영지원총괄 전우이사 진태진
-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부장급 △ 경영관리부장 안길훈 ◇ 실장급 △ 원자력통제본부 물리적방호실장 장성순 △ 정책연구센터 정책연구실장 조성연 △ 경영관리부 기획예산실장 고문성 △ 행정지원실장 장재원
- ◆ **호서대** △ 학사부총장 겸 행정부총장 김석동 △ 국제협력 특임부총장 박철호 △ 국제협력 특임부총장 강준모 △ 감사실장 김중호 △ 대외협력실장 류문상 △ 벤처대학원장 하규수 △ 다·학교양대학장 박창훈 △ 미래전략위원회위원장 문남미 △ 교무부처장 두경희 △ 대외협력부실장 이용재 △ 교

- 육성과관리센터장 두경희 △ 연합신학전문대학원부원장 황병준 △ 벤처대학원부원장 이소영 △ 다·학교양대학부학장 김혜경 △ Caritas봉사센터장 안준희 △ 창업지원단장 김홍근

부음

- ▲ **황수운씨** 별세, 황용득(전 한화갤러리아 대표이사·대한사격연맹회장)·혜숙·문숙·진수씨 부친상, 도정미씨 시부상, 신동근(재 캐나다 사업)·오재승(한성대 교수)·오명성(재 캐나다 사업)씨 장인상, 황준호(BK기업은행)씨 조부상 = 2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5호, 발인 4일. ☎ 02-3010-2295
- ▲ **남궁송자씨** 별세, 허재철(대원강업 회장)·재웅(대원강업 사장)·재현(대원정밀 감사)·재성(전국은행연합회 감사·전 한국은행 부총재보)씨 모친상, 고옥희·김중희·이보영·안병요씨 시모상 = 2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0호, 발인 4일. ☎ 02-3010-2361

- ▲ **김순애씨** 별세, 차준섭(스마트미디어인재개발원장·호남대학교 교수)씨 모친상, 차화진(SK주식회사 C&C PR팀 수석)·경진(강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현석(스마트인재캠퍼스 대표)·현승씨 조모상, 김춘자(전 화순제일초등학교 교사)씨 시모상 = 1일 오전 11시30분, 광주 VIP장례식장 VVIP실 101호, 발인 3일 오전 10시. ☎ 010-8615-3650, 010-4729-4650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중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1721-9800, FAX: 021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준준
인쇄인	중앙일보(주) 김준준
광고문의	021721-9851, 9826
독자센터	021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710206 2002년5월28일 제401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715011 2017년3월09일 제106호

1차 통과 수험생, 집단면접 대비

메트로가 꼭 짚는 대입전략

⑨ 경찰대·사관학교

경찰대, 국·수 쉽고 영어 어려워
2차 시험, 면접 형식·내용 파악
정시선발선 수능 영향력 절대적



김명찬 총로학원 학력평가연구소장

지난 7월 28일 경찰대, 사관학교 1차 시험이 동시에 실시됐다. 경찰대, 사관학교 모두 1차시험은 국어, 영어, 수학 지필고사로 구성된다. 따라서 경찰대, 사관학교를 목표로 하는 수험생은 국어, 영어, 수학의 기초체력을 탄탄히 하고 시험의 유형을 정확히 파악해 대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경찰대 1차 시험은 국어와 수학은 전년 대비 다소 쉽게 출제된 반면, 영어는 체감난이도가 높았다. 경찰대는 올해 수학의 시험범위를 일부 변경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범위와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수험생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이번 시험을 분석한 결과 국어와 수학의 체감난이도는 낮아진 반면 영어의 체감난이도는 약간 높아진 것으로 나

타났다. 전체적으로 수능 유형과 유사하지만, 국어에서 문법 문제의 난이도가 수능에 비해 아주 높은 점 그리고 수학에서는 수능에서는 자주 출제되지 않는 가우스합수, 상용로그 등이 출제된다는 점에서 수능 유형과는 차별화되는 경찰대 특유의 출제경향이 유지되고 있다.

영어는 특히 경찰대와 사관학교 모두 체감 난이도가 높았다. 영어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높아진 것보다는 수능 영어 절대평가에 따라 학생들의 영어 학습량이 줄어든 것이 주된 원인으로 추정된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는 2018학년도에 첫 적

용됐고 올해 2년차다. 따라서 영어가 수능시험에서는 절대평가로 인해 영향력이 줄었지만, 경찰대와 사관학교 1차시험에서는 영어의 영향력이 오히려 더 커졌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경찰대의 수학시험이 인문계, 자연계 구분없이 동일한 시험을 치르는 반면, 사관학교의 경우 수학기(자연계), 수학나(인문계)로 분리되어 수능 유형과 거의 동일하다. 올해 사관학교 수학시험의 난이도를 분석해 보면 수학가는 전년대비 약간 쉬웠던 반면 수학나는 전년대비 약간 어려웠다. 수학나의 경우 수능에서는 비교적 쉽게 출제되는 경우의 수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어 체감난이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차시험을 통과한 이후에는 체력검사와 면접으로 구성되는 2차시험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면접에서는 개별면접 이외에도 집단토론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면접의 형식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대비하는 것이 좋다. 수시에서는 수능을 반영하지 않지만, 정시선발의 경우 수능의 반영비율이 아주 높으므로 최종합격을 위해서는 수능에서 고득점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경희사이버대학교와 SPC그룹은 매년 진행되는 SPC식품과학대학의 입학식 및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양 기관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은 2018학년도 SPC식품과학대학 입학식과 학위수여식 모습. /경희사이버대학교

경희사이버대 SPC 장학생 4명에 1600만원 지급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식품그룹 SPC그룹과 함께 지난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SPC 컬리너리 아카데미' 장학생 4명을 선발해 장학금 약 1600만원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SPC 컬리너리 아카데미는 SPC그룹의 (주)파리크라상이 직접 운영하는 제과·제빵·요리·커피 전문 교육기관으로 파리바게뜨, 파리크라상, 카페 파스쿠치, 던킨도너츠 등 유명 계열사를 다수 보유한 글로벌 기업이다.

이번 SPC 컬리너리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카페 음료 과정, 커피 기초 입문 과정, 프렌치 요리 기초 입문 과정 등 3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이번엔 선발된 장

학생들이 참여하게 된다.

카페 음료과정에는 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 권한결 씨(2018학번), 커피 기초 입문 과정에는 외식조리경영학과 이슬 씨(2015학번), 프렌치 요리 기초 입문 과정에는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학과 권동영 씨(2016학번)와 외식조리경영학과 최아영 씨(2016학번)가 각각 최종 선발됐다.

카페 음료과정 프로그램 장학생으로 선발된 권한결 씨는 "커피와 요리에 관심이 많지만, 음료에 관한 공부가 부족한 것 같아 음료 분야에 지원하게 됐다"며 "새로운 음료를 만들고 창업에 대한 공부도 같이 진행돼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hys@r

상반기 이직자 절반 “연봉 평균 148만원 올랐다”

잡코리아 이직자 621명 설문조사

“직급상승으로 연봉 ↑” 7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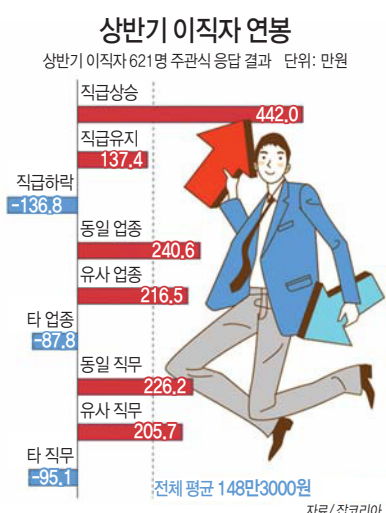
“타 직종 이직엔 연봉 ↓” 43.1%

올 상반기 이직에 성공한 직장인 2명 중 1명은 이직과 함께 연봉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업종으로 직급을 높여 이직하는 경우 연봉 인상폭이 가장 컸고,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시 연봉이 가장 크게 올랐다.

2월 잡코리아가 올 상반기 이직에 성공했다는 직장인 6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직 성공 직장인 54.3%가 '이직과 함께 연봉이 올랐다'고 했다. 반면 24.8%는 '연봉이 같은 수준'이라고 했고, '오히려 연봉이 낮아졌다'는 직장인도 20.9%나 됐다.

이직 과정에서 연봉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직급 상승'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그룹별 분석 결과 ▲직급이 상승한 경우 '연봉이 올랐다'는 응답이 73.6%로 전체 응답군 중 가장 높았다. 반면 ▲직급 유지 그룹의 경우 58.0%, ▲직급 하락 그룹은 38.9%로 '연봉이 올랐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또 업종 및 직무 전환 여부에 따라서는



▲동일업종(60.8%)이나 ▲동일직무(60.1%)로 이직했을 때 연봉이 올랐다는 응답이 높았다. 기업 유형에 따라서는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할 때 (69.7%) 주로 연봉이 올랐다.

반면 '이직 후 연봉이 낮아졌다'는 응답은 ▲전혀 다른 직무로 이직한 경우 43.1%로 가장 높았다. 직무가 전혀 달라진 경우 '연봉이 올랐다'는 응답은 '연봉이 깎였다'는 응답보다 약 9%p 가량 적었다. 또 ▲전혀 다른 업종(39.9%)으로 이직한 경우, ▲직급이 하락(36.1%)한 경우도 연봉이 낮아졌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직자 1인당 연봉 증감액은 평균 148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연봉이 증가한 그룹의 연봉 인상액은 1인 평균 449만5000원이었으며, ▲연봉이 감소한 그룹은 이전 직장보다 평균 457만원이 낮아졌다.

연봉 증가폭은 기업 형태에 따라 크게 달랐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직한 직장인들의 연봉은 평균 65만7000원이 깎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기업에서 몸값을 낮춰 중소기업으로 가는 경우 감소액이 평균 650만원에 달했다. 반면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평균 219만1000원이 증가했는데, 몸값을 높인 직장인의 순수 증가액만 집계하면 평균 527만4000원에 달했다.

직급의 변화에 따라서는 ▲직급이 상승한 경우 연봉이 평균 442만원이 올라 증가폭이 가장 컸으며, ▲직급 하락 그룹은 평균 136만8000원이 깎여 이직에 따른 연봉 편차가 가장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동일 업종으로 이직한 경우 240만6000원, ▲동일 직무는 226만2000원이 증가한 반면, ▲타 직무(-95만1000원) 및 ▲타 업종(-87만8000원)으로 이직한 경우 연봉이 오히려 감소했다. /한용수 기자

대학가 소식

세종대 진중현 교수

한국육종학회 연구상 수상

세종대(총장 배덕효)는 바이오산업융합학과 진중현 교수가 한국육종학회가 수여하는 '2018 한국육종학회 연구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진 교수의 수상 논문은 '벼의 인디카-자포니카 교잡 집단에서 잡종강세 현상에 관여하는 양적형질유전자좌와 동정'이다. 양적형질유전자좌란 다수의 유전자가 관여하는 형질에 연관된 염색체 상의 유전자 그룹을 의미한다. 벼의 두가지 생태형인 '인디카', '자포니카'의 교잡시 발생하는 잡종불임 현상이 간섭하는 잡종



세종대 바이오산업융합학과 진중현 교수가 최근 '2018 한국육종학회 연구상'을 수상했다. /세종대

강세 현상의 분석법에 대해 다뤘다.

진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토대로 식량작물과 약용작물 품종을 개발해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도록 하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서울여대

여고생 바롬인성교육

서울여자대학교(총장 전해정)는 1일~2일까지 서울 노원구 교내 바롬인성교육관에서 고교 2학년 여학생 130여명을 대상으로 '제19회 바롬예비대학'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바롬예비대학은 서울여대의 특화된

공동체 인성교육인 '바롬인성교육'을 고교생들이 직접 체험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이틀간 조별 비경쟁 협동놀이 통해 화합과 유대감을 높이는 활동을 했다. ▲길을 찾는 나 ▲함께 하는 나 ▲꿈을 꾸는 나 ▲미래로 가는 나 등을 주제로 진행되는 소집단 중심의 교육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고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즐거움을 배우게 된다.

상명대 대학원-합동군사대학교

학점인정 운영협약 체결

상명대학교대학원(원장 권찬호)은 지난 1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서울캠퍼스 중회의실에서 합동군사대학교와 학점인정 운영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2018학년도 상명대 대학원 국가안보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하는 합동군사대학교 수료자는 6학점까지 학점이 인정되고 1개 학기 수업연한이 단축된다.

협약식에는 백웅기 상명대 총장을 비롯해 권찬호 대학원장, 박정란 대학원부



(왼쪽부터) 서천규 교수부장, 백웅기 총장, 권찬호 대학원장 /상명대

원장이 참석했고, 합동군사대학교에서는 서천규 교수부장, 사윤권 연구조정관, 이정현 평가과장, 남팔개 교육체계발전 담당, 교수학습개발과 최정빈 교수가 참여했다. /한용수 기자

에스티유니타스 에듀테크 기술로 '관리형 과외' 론칭

에듀테크 기업 에스티유니타스(ST Unitas)는 오프라인 수업의 시공간적 한계를 혁신한 신개념 '관리형 과외 서비스'를 론칭했다고 2일 밝혔다.

관리형 과외 서비스는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중고등학생 과외를 온라인 수업으로 가능하도록 한 서비스다. 1명의 선생님이 3명의 학생과 공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에듀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시공간적 제약을 해소하고, 집중

력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학습 환경을 구현했다.

특히 학생들이 학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업 무단 결석이나 과제 미수행, 테스트 미응시 등의 결격 사유 발생시 경고가 주어지고, 3회 경고를 받은 학생은 수업을 받을 수 없도록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

에스티유니타스는 오랜 연구 끝에 1명의 선생님과 3명의 학생이 공부하는 시



스템이 가장 높은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온라인 수업 환경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이에 최적화된 기능을 갖춘 화상 플랫폼을 개발했다. /한용수 기자

Angel-in-us Coffee®



아메리치노 · 달콤한 우유와 만나다



New

아메리치노 라떼



커피를 사랑하는 엔제리너스 커피는 SCA, ACE 국제 스페셜티 협회 공식 회원사입니다.

깃발부대 이제 그만... 나만의 여행 추구 '나심비' 대세로

미슐랭 식당... 럭셔리 호텔... 프리미엄 여행족 뜬다

비용 더해도 좋은 호텔·이색 상품 각광
비즈니스·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 인기



GS샵

여행 시장에도 '나심비' 트렌드가 떠오르면서 프리미엄 여행 상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나심비는 나의 만족을 위해 가격과 상관없이 지갑을 여는 것을 일컫는 신조어다.

2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해외 여행객 수는 2015년 1931만명, 2016년 2238만명, 2017년 2649만명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는 3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 여행객 증가는 '올로(You Only Live Once)'에 이어 '위라벨(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이른바 '나심비' 트렌드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여행을 주제로한 다양한 TV 예능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끌면서 해외 여행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다.

TV홍소풍에서 소개하는 여행지도 매우 다양해졌다. 특히 잘알려진 인기 지역이 아닌, 새로운 여행지나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이색 상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무조건 저렴한 여행 상품보다는 조금 더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좋은 호텔과 색다른 일정으로 짜여진 상품이 각광받고 있다.

이에 GS샵 오는 5일 자사 대표 여행프로그램 '쇼미더트래블'을 통해 '뮤즈(MUSE) 럭셔리 패키지'를 선보인다.

'뮤즈'에서 선보이는 여행상품들은 럭셔리호텔 숙박, 미슐랭 식당 식사 등으로

구성돼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여행을 즐길 수 있다. 특히 현지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행코스가 기존의 여행상품들에서 다루지 않았던 일정으로 짜여 있어 새로운 경험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번 방송에는 체코 7일, 파리/노르망디 8일, 하와이 7일 등 총 5개의 여행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체코 7일 여행의 경우 마리오테트 인형만들기, 필스너 우르겔 공장 방문, 프라하 음악축제 감상, 스

냅사진 촬영 등의 여행코스로 이루어져 있으며, 파리/노르망디 8일 상품은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 따라 하기, 나만의 향수 만들기, 크리스찬 디올 박물관 방문 등의 일정이 진행된다.

GS샵 토탈서비스팀 오세찬 팀장은 "누구나 한번쯤 가봤을 만한 일정의 여행상품이 아닌 특별한 경험을 선보이고자 차별화된 럭셔리 패키지를 론칭했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아울러 프리미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비즈니스 클래스와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도 인기다.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대비 올해 2분기의 국제선 매출은 31% 상승한 것에 비해, 같은 기간 비즈니스 클래스 매출은 135%,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의 매출은 61% 상승했다.

전체 국제선 구매 고객 중 비즈니스 클래스 이용 비중은 작년 4분기 4.2%에서 올해 2분기 기준 7.5%까지 올라 2배 가까이 상승했다. 프리미엄 이코노미는 이코노미보다 약 1.5배~2배 가량 비싸지만 여유로운 좌석과 우선 탑승·하차, 비즈니스급 기내식 등 차별화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고객 만족도가 높다.

프리미엄 이코노미와 비즈니스석 항공권의 이용률이 가장 높았던 노선은 동남아로, 옥션에서 지난 10개월(17년 9월~18년 6월) 간 비즈니스와 이코노미클래스 매출의 42%를 차지했다. 이어 유럽이 매출의 23%를 차지했고, 미주는 19%를 차지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G마켓, 옥션에서는 전 노선에서 비즈니스석을 최대 15만원 할인하는 '격이 다른 여행' 프로모션을 실시 진행중이다. 또 G마켓과 옥션, G9에서는 이달 31일까지 에어캐나다와 함께 비즈니스(시그니처) 클래스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특히 G마켓은 롯데카드와 함께 'TV 속 핫한 여행지 유럽편' 할인 프로모션을 오는 31일까지 선보인다. 프로모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베이코리아 여행사업팀 임지연 팀장은 "무조건 최저가만을 찾기 보다는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누릴 수 있는 상품으로 몰리고 있다"며 "이런 흐름을 반영한 다양한 상품들과 프로모션이 앞으로도 인기를 끌 전망"이라고 말했다.

※원문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린넨·인견, 중성세제로 손빨래해야

자주입는 흰 옷은 '애벌빨래' 추천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땀 흡수와 배출이 잘 되는 린넨, 인견 등 시원한 소재가 인기를 끌고 있다. 린넨과 인견은 식물성 섬유 중 하나로 일반 옷과 소재가 다르므로 세탁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2일 "여름철 많이 찾게 되는 린넨과 인견, 흰 옷 등을 세탁할 때는 세탁라벨을 확인 후 올바른 방법으로 세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린넨은 뜨거운 물세탁, 드라이클리닝 지양
린넨은 마를 기반으로 하는 얇은 소재로 땀 흡수력과 체온을 낮춰주는 효과가 탁월하지만 구김도 잘 생기는 만큼 세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린넨의 올바른 세탁방법은 30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에서 중성세제로 손빨래하는 것이 좋다. 이 때 너무 강하게 주무르거나 비틀면 옷 형태가 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며 세탁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옷감 보호를 위해 세탁망에 넣은 후 울코스로 세탁하는 것이 좋다.

애경산업의 '울삼푸 고급 면 전용세제'는 pH 6~8의 중성세제로 식물성 섬유인 면, 마, 린넨 등을 효과적으로 세탁 할 수 있으며 물 빠짐과 옷감변형을 줄여준다.

린넨 세탁 시 섬유유연제 사용과 드라이클리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섬유유연제를 사용하면 린넨의 식물 줄기가 떨어져 나가는 현상인 잔사가 발생할 수 있으며 드라이클리닝을 하면 변색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건조시에는 그늘에서 말리는 것이 좋다.

◆인견 세탁, 30°C 이하의 물에서 중성세제로 세탁
인견은 물에 약한 반합성 소재의 섬유로 세탁 시 물에 장시간 담가 두면 강도가 약해져 주의해야 한다. 100% 인견으로 이루어진 린넨이나 울은 물에 젖으면 모양에 변형이 올 수



있어 조심스럽게 손세탁을 하는 것이 좋다. 손세탁을 할 때는 30°C 이하의 물에서 세탁하는 것이 좋으며 섬유 사이에 찌꺼기가 남지 않도록 액체형 중성세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세탁기를 사용할 때는 단독세탁으로 세탁망에 넣은 후 울코스로 세탁하는 것이 좋다. 이 때 강한 탈수는 옷감을 변형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흰 옷은 '애벌빨래'로

여름철 특히 자주입는 흰 옷은 커피나 음식물과 같은 생활 얼룩에 취약하기 마련이다. 흰 옷을 깨끗하게 세탁하기 위해선 생활 얼룩을 애벌빨래 하는 것을 권장하고, 다른 빨랫감과 함께 세탁하기 보다는 흰색의류만 모아 단독 세탁하는 것이 좋다.

땀이나 피지 등으로 오염되기 쉬운 목, 소매, 겨드랑이 부분은 애벌빨래를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얼룩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좋다. /김서 기자



홈플러스 '바강스 먹거리 대전' 진행

홈플러스가 2일 오전 서울 문래동 홈플러스 영등포점에서 각종 바강스 먹거리를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는 오는 8일까지 휴가지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를 비롯해 물놀이용품과 캠핑용품, 여름용 의류·잡화를 선보이는 '바강스 대전'을 진행한다. 대표적으로 '1등급 이상 일품포크 삼겹살'(서귀포점 제외)을 100g당 1890원에 선보이며, '냉동 돌돌말이 삼겹살'은 3대 행사카드(신한·KB국민·삼성카드) 결제시 1팩(900g, 스페인산, 정사각 9990원)당 8990원에 판매한다. /손진영 기자 son@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37 | 해질 / 19: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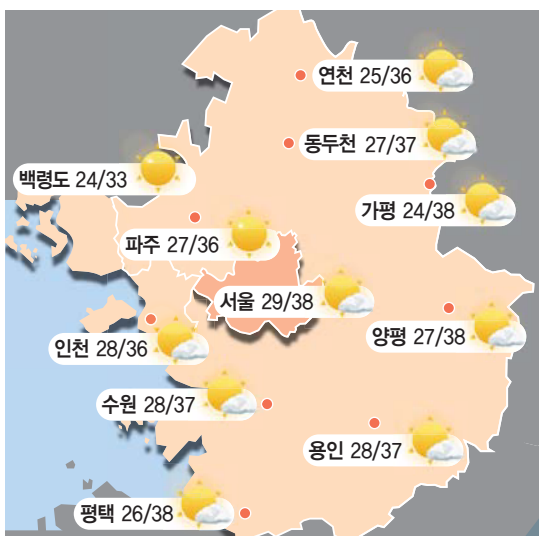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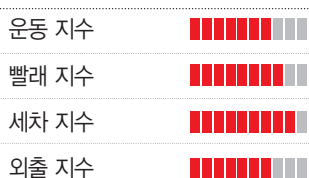
8월

3일

음력 : 6월 22일

수도권 날씨

38~29°C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육아휴직' 늘고있지만... 기업 규모별 격차 커

규모 작아질수록 도입비율 적어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위라벨(Work and Life Balance)'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 속 육아휴직자 수는 늘었지만, 기업 규모별 격차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사람이인 통계청의 '2017 일·가정 양립 지표'를 분석한 결과 육아휴직자 수는 최근 5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2013년(6만9616명) 대비 2017년(9만123명) 29.5% 증가했다. 육아휴직자 수는 증가했지만, 기업 규모별 격차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의 기업의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률 실태 조사'에 따르면 300인 이상의 기업에서는 출산휴가제와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모두 90% 이상 도입하고 있었지만, 100인 이하 규모의 기업으로 갈수록 그 비율은 줄었다. 육아휴직제의 경우 2017년 조사 기준 '300인 이상 기업'은 93.1%가 도입했으나, '100~299인 기업'(86.7%), '30~99인 기업'(76.1%), '10~29인'(46.1%), '5~9인'(33.8%)로 급격하게 낮아졌다.

이런 가운데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017년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남성 육아휴직자수는 2013년 2293명에서 2017

년 1만2043명으로 늘어났으며 5년 동안 전년 대비 40%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전체 육아휴직자 대비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도는 2015년 5.6%에서 2017년 13.4%로 증가했지만, 겨우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 제도는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사람이인 '300인 미만 규모 기업' 232개사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부담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여성직원의 비율은 47%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남성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직원이 없다'는 기업이 90.9%로 남성육아휴직은 거의 없는 제도나 마찬가지였다. /한용수 기자 hys@

국토부 “서울 집값 불안 재연땐 추가대책 내놓을 것”

‘8·2 부동산대책’ 시행 1년

청약 과열·집값 불안지역에 불법청약·전매 점검 등 강화

다주택자 주택보유 모니터링 “주택시장 안정화에 역점 둘 것”



8·2대책 발표 1년을 맞은 가운데 서울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박원순 서울 시장이 불지핀 서울 여의도와 용산 일대의 아파트 시장은 매물 폭귀 현상을 빚으며 가격이 초강세다.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 ‘8·2대책’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부동산 시장 과열은 어느 정도 진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최근 서울 일부 집값이 다시 상승, 정부는 집값 불안이 재연되면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경고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 집값 안정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에 역점을 두고 8·2대책의 기초 위에 추가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8·2대책, 10·24 가계부채 대책 등 기존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간다.

이를 위해 집값 불안지역과 청약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계획서 등 실

거러 신고내역 조사 및 불법청약·전매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국토부, 서울시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부동산 시장 현장점검 및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한다.

8·2대책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등 조합원 해당권 제한 등 정비사업 규제의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필요시 국세청과 협조해 편법증여, 세금탈루 등에 대한 세무 조사를 추가 실시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협조해 LTV(담보인정비율)·D 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준수 여부 및 편법 신용대출 등에 대한 집중 점검 역시 동반해서 실시한다.

다주택자 주택보유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정상과세 실현 방안도 추진된다.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빠른 시일 내 가동해 다주택자의 주택거래 및 보유현황, 임대소득 및 임대등록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임대소득세 정상 부과를 위해 개인별 주택소유 현황, 추정 임대료 등 관련 자료를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정기적으로 공유할 방침이다. 하반기 중 추가적인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예정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한다.

오는 10월부터 은행권 여신관리 지표로 도입 예정인 총부채상환비율(DSR)도 적기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한다. 아울러 재정개혁특위에서 하반기에 논의할 예정인 세제 개편방안 등에 대해서는 투기수요 억제와 시장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서울시 등과 협조해 도심 역세권·유휴지·개발제한구역(GB) 등을 활용, 공공주택지구 입지를 확보하는데 노력하는 등 도시 내 주택공급도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택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나가며, 8·2대책에 기반한 시장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집값 불안이 재연될 경우에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광운대역 노후주택, 17층 아파트로 탈바꿈

공공임대주택 설립 심의 통과 사회복지·근린생활 시설 등 입주

서울 노원구 광운대역 인근에 17층짜리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열고 노원구 월계동 411-53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광운대역세권 재개발정비구역은 노후·불량건축물이 혼재된 주거지역으로 지난해 5월 노원구청에 주민제안 신청서가 접수됐다. 이후 주민설명회와 공람공



광운대역 역세권에 들어서는 17층짜리 공공임대주택 조감도. /서울시

고, 구의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가 진행됐고, 이번에 정비구역 지정안이 시 도계위

심의를 통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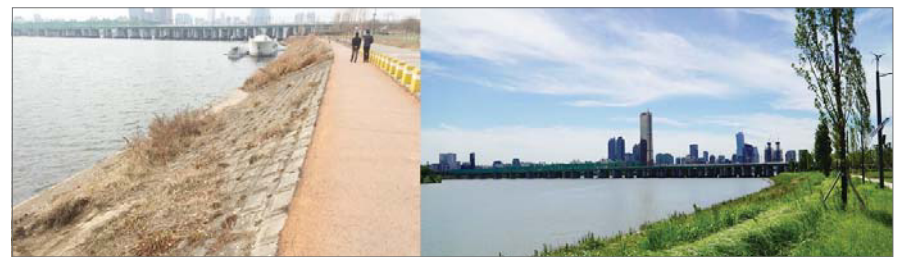
해당 구역에는 지하 7층~지상 17층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이 세워진다. 신축 건물에는 공공임대주택 63세대, 사회복지 시설, 근린 생활시설 등이 입주한다.

최종 사업계획은 향후 건축위원회 건축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거환경 개선과 역세권 활성화,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도계위는 금천구 시흥동 현대아파트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안과 반포아파트지구(3주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 강남구 대치동 버스차고지 폐지안을 보류했다. /김현정 기자 hjk1@



‘서울 낮 기온 39도’ 도심 속 아지랑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대로 일대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도로를 시민들이 건너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사업시행 전 이촌한강공원 인공 호안(왼쪽)과 사업시행 후 이촌한강공원 자연형 호안. /서울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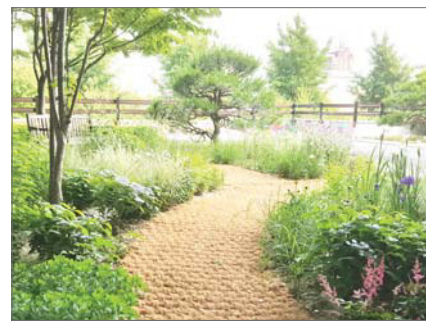
서울시, 감정노동자 정서치유 돕는다

시립병원·자살센터 등 의료기관

서울시가 감정노동 종사자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서비스디자인’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시민공감서비스 디자인센터를 통해 시립병원, 자살예방센터 등 공공 의료서비스 기관에서 환자, 보호자, 종사자의 정서 치유를 위한 서비스를 시행해왔다.

시는 ‘시립병원 직원 대상 폭언 및 폭행 대응 매뉴얼’을 개발, 전 시립병원에서 활용하고 있다. 폭언과 폭행상황이 발생하



면 신고·대응·보고 절차를 진행해 유사사고를 막고, 직원이 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에도 상담, 휴식, 조퇴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서울시 용인정신병원은 ‘감정노동 힐링센터’를 조성했다. 병원 종사자들이 폭언과 폭력으로 감정노동에 지쳤을 때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명상 장소인 ‘쉼표’와 카페 ‘따옴표’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북부병원은 건물 옥상에 ‘마음 풀 정원(사진)’을 설치해 환자, 보호자, 주민 등 누구나 지친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자살예방센터는 자살위험군의 상담자들을 24시간 응대해 잠지도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종사자들을 위해 각자 자리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아늑한 개별 사무 공간을 만들었다. 센터는 자살 유가족들을 위한 ‘유가족 힐링공간’도 운영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한강 생태계 복원 모습 사진으로 한 눈에”

‘2030한강 자연성 회복 사진전’

한강의 생태환경이 복원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진전이 열린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2~10일 시청 1층 로비 전시공간에서 ‘2030한강 자연성 회복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시는 ▲생태환경 개선을 위한 한강 숲 조성 ▲맑은 물 회복을 위한 자연형 호안 복원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한강, 총 3가지 테마로 구성됐다.

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 자연성회복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단기(2014~2018년), 중장기(2019~2030년) 실행계획을 통해 한강의 자연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한강숲 조성, 자연형 호안복원, 생태계점조성 등이 있다. 한강숲 조성은 은난화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여의도공원의 5배 크기(104만7000㎡)의 숲을 만드는 사업이다. 현재 47만5660㎡ 규모의 숲을 조성했다. /김현정 기자

우리 구청 소식

마포구 전신주 대신 파란하늘 ‘도화길 지중화 사업’ 마무리

서울 마포구는 도화길 지중화 사업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지역 상권의 발전으로 전력과 통신 수요가 증가해 도화길에 있는 전신주들의 몸집과 무게가 늘어났다. 이에 구는 한국전력공사의 승인을 받아 지난 2015년부터 도화길 지중화 사업을 진행해왔다. 올



해 7월 마지막 남은 전신주 하나를 철거하며 공사를 마쳤다. /김현정 기자

난방용 등유 넣은 관광버스 무더기 적발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 경유차량에 난방용 등유를 넣고 달린 관광버스가 적발돼 관련자 총 22명이 형사입건됐다. 경유차량에 등유를 장기간 주유하면 엔진이 고장나거나 정지될 우려가 있어 인명 피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대기질을 오염시키는 유해가스도 배출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심야시간대

대형버스 주차장에서 이동주유차량을 통해 관광버스에 등유를 주유한다는 첩보를 입수, 한국석유관리원과 13개월 간 잠복·추적 수사 끝에 이들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판매업자 4명, 버스기사 18명 등 관련자 총 22명을 형사입건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주차된 버스에 이동식 주유차량으로 경유 아닌 등유를 공급하고 있는 모습. /서울시



[산업]
조현준 효성 회장
폭염 속 이웃나눔 실천
05



[유통]
한화갤러리아
'포레르빠주' 입점
니



하늘(上)이 주는 자연 그대로 땅(下)에 담다

푸른 초원·유기농 사료... 행복한 젖소가 주는 '선물'



상하목장 목장주들.

/매일유업

메가하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 매일유업 '상하목장'

매일유업 상하목장은 '하늘 상(上)', '땅 하(下)', 하늘이 주는 자연 그대로, 땅의 사람이 정직하게 담아 전하겠다는 약속을 의미한다. '자연에게 좋은 것이 사람에게도 좋다'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는 매일유업 상하목장은 자연 그대로의 가장 정직한 유제품을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자 지난 2008년 6월 첫 선을 보였다. '오가닉' 라인업의 유기농 유제품들을 출시한 이후 꾸준히 국내 유기농 유제품 시장을 선도하며 유기농의 대중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상하목장은 자연에 가장 가까운 맛과 풍미를 담은 '슬로우밀크'와 12종의 다양한 케피어 유산균으로 만든 발효유 '케피어12'를 선보이며 '슬로우(SLOW)' 라인업을 추가해 유기농을 넘어 친환경 브랜드로 외연을 확장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비자 기호를 반영한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이며 국내 친환경 유제품 시장 확대에 힘쓰고 있다.

◆상하목장의 탄생

전북 고창군 상하면 자룡리 매일유업 상하 유기농 우유 생산공장은 3년간 낙농가와 함께 손잡고 피땀 흘려 고생해 큰 결실을 맺었다.

이곳을 찾아가는 데만 해도 상당한 공을 들여야 한다. 서해안고속도로 선운사 IC를 빠져나와 22번 국도와 77번 국도를 거쳐 달리기를 30여분, 2차선 좁은 시골길을 한참을 달려야 유기농 우유 공장을 만날 수 있다.

매일유업의 고(故) 김복용 선대회장은 유기농을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생각해 교통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이곳을 유기농유제품 생산 근거지로 선택했다. 고창은 비옥한 황토와 깨끗한 물, 공기를 순환시키는 해풍 및 해양성 기후로 겨울에도 일정 온도 이상이 유지되는 등 유기농을 위한 최적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또한 오랜 기간 낙농업을 성장시켜 온 수십 년 이상 경력의 목장주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곳이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낙농가의 의지였다. 낙농가의 입장에서 익숙해진 일반 우유

유기농 원유와 일반 원유의 목장관리 기준

	유기농 원유 (행복한 소)	일반 원유
자라는 곳	축사 17.3㎡ (약 5.2평) 젖소 1마리당 초지 916㎡ (약 277평) 운동장 34.6㎡ (약 10.5평)	축사 16.5㎡ (약 4.9평) 초지 조성 없음 운동장 조성 없음
먹는 물	생활용수 이상	용수 조성 없음
먹는 사료	유기농산물	일반 농산물
환경	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수의사 처방시 예외), 비유축진제, GMO 농작물 등 사용불가	사용기준 없음
토양	중금속 토양오염 우려 기준 미만	중금속 토양오염 기준 없음
돌보는 사람	전담 수의사 + 목장주	목장주
수정 방법	번식호르몬 사용, 수정란 이식, 유전공학 이용한 번식기법 금지	관련규정 없음

자료/ 매일유업



매일유업 상하목장의 젖소가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다.



상하공장 생산라인에서 유기농 우유가 생산되고 있다. /매일유업

2008년 6월 '오가닉' 라인업 출시 친환경 유제품 시장 확대에 앞장

최적의 자연환경 가진 고창서 낙농가와 손잡고 3년간 일귀

유기농산물·생활용수 사용 전담 수의사 배치해 관리

국내 유일 첨단필터기술 갖춰 무균포장으로 온라인 유통도

▶ 상하목장은 국내 유업계 최초로 안전관리 통합인 증인 'HACCP 황금마크'를 획득해 생산과 유통 전반에 걸쳐 더욱더 까다로운 품질 관리를 지향하고 있다.



▲ 상하목장 유기농 우유 무균팩.

생산을 중단하고 새로운 환경에 젖소를 적응시켜야 하는 것 자체가 모험이었다. 시행 초기에는 40여 낙농가가 야심차게 유기농에 도전했으나 기존 사료에 익숙한 젖소가 유기농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실패를 거듭해 결국 20개의 낙농가만이 자리를 잡았다.

고창군은 2007년 2억2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유기농 낙농가들이 자리를 잡게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다음해에는 예산을 7배 이상 늘린 16억원을 편성해 낡은 낙농시설의 교체와 유기농 우유 생산을 위한 시설의 증·개축 등에 투자했다. 유기농 제품에 '상하목장'이라는 지역명을 사용하는 데 대한 보상 차원과 미래 지향적인 유기농 낙농가의 육성이 정부 정책과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2008년 6월 매일유업이 고창군 상하면의 '상하' 상품 브랜드가 탄생하게 됐다.

◆상하목장 품질

상하목장 우유가 생산되는 상하공장이 위치한 전북 고창은 국내 최초로 행정구역 전체(671.52㎢)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될 정도로 청정한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곳이다. 매일유업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목장과 공장, 유통과정을 아우르는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유기농 제품인 '상하목장'을 생산하고 있다.

사료도 유기농만 사용한다. 유기농 원유 생산을 위해서는 사람이 마시는 것과 같은 깨끗한 물에 3년 동안 농약 없이 자연되비로만 기른 유기농 풀을 먹여야 한다. 청정지역에서 유기농산물을 원료로 만들어 유기농 인증을 받은 곡물만 소들의 사료로 사용하고 있다. 좋은 물에 고가의 유기농 사료를 줘도 화학비료와 농약으로 탐스럽게 자란 먹이에만 길들여진 젖소들은 기운이 없어 보이고 원유 배출량도 턱없이 적다. 하지만 거친 유기농 사료에 적응하며 전환 시기를 견뎌낸 젖소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연의 소생력이 생겨나며 더 건강해진다.

◆유기농 우유VS일반우유

일반우유와 유기농 우유의 차이는 그 관리 방법과 안전성에 있다. 상하목장의 유기농 우유는 느리지만, 자연의 순리대로 정직하게 키워낸 젖소에서 집유한 원유로 우유를 만든다. '상하목장'은 유기농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 젖소 한 마리당 916㎡(약 277평) 이상에 해당하는 초지와 17.3㎡(약 5.2평) 이상의 축사, 34.6㎡(약 10.5평) 이상의 방목장을 확보한 목장에서 생산된 우유만을 사용한다. 상하목장은 유기농 초지 조성을 위해 땅의 합성농약, 화학비료 성분을 빼내어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복귀시키기 위해 약 3년 이상의 시간을 공들였으며,

전담 수의사를 배치해 까다롭게 관리하고 있다.

상하목장은 온도와 시간에 민감한 유기농 우유의 특성을 고려해 특별히 설계된 상하공장에서 생산된다. 100억원의 생산설비 투자로 설립된 상하공장은 세균 차단 기술 시스템과 마이크로필터레이션 공법 등 최첨단 신규 설비를 갖추고 있다. 특히 국내 최초로 도입된 마이크로필터레이션 공법은 미세 사이즈의 필터를 통해 카세인, 단백질, 유당 등의 유익한 성분은 그대로 통과시키면서 인체에 유해한 세균과 미생물을 99.9% 이상 걸러내는 국내 유일의 첨단 필터기술이다.

아울러 상하목장식 파스퇴라이제이션 살균법(HTST)으로 섭씨 75도의 온도에서 15초간 살균해 맛은 지키면서 유해 세균과 미생물은 차단할 수 있어 자연에 가까운 우유의 맛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다. '상하목장' 우유 제품은 백색의 필름으로 감싼 PET병에 담겨 공급되는데, 빛의 투과율을 떨어뜨려 자외선을 99.9%까지 차단함으로써 우유 속 비타민 손실을 막아 준다. 멸균 제품은 무균포장 기술을 적용해 기존 냉장우유와 달리 상온에서도 보관이 가능해 온라인 시장에서 유통이 가능하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